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담양군 인구소멸대응 정책 연구회]

연구의원 _____

- 박은서 대표의원
- 장명영 의원
- 박준엽 의원



(협)천년담양문화제작소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협)천년담양문화제작소

제 출 문

담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담양군 인구소멸대응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귀하

담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협동조합 천년담양문화제작소에 의뢰한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협)천년담양문화제작소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담양군의회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연구회
참여의원**



박은서 의원(대표위원)



장명영 의원



박준엽 의원



활동내용

■ 간담회



▲ 인구소멸 대응 농촌유학 활성화 (2024. 4.17.)



활동내용

■ 간담회



▲ 현장활동 일정 협의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활동내용

■ 현장활동 (곡성 스테이션 1928)



▲곡성군 인구정책팀 간담회 (2024. 7. 18.)



활동내용

■ 현장활동 (곡성 스테이션 1928)



▲ 폐교활용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 시설 견학 (2024. 7. 18.)



활동내용

■ 현장활동 (곡성 오산초등학교)



▲곡성 오산초등학교 교장 간담회 (2024. 7. 18.)



활동내용

■ 현장활동 (곡성 도담도담 유학마을)



▲곡성 도담도담마을 농촌유학 가족 주택 시설견학 (2024. 7. 18.)



활동내용

■ 현장활동 (담양 잇다자유발도르프 대안학교)



▲잇다자유발도르프 대안학교 관계자 간담회 (2024. 7. 18.)



활동내용

■ 현장활동 (충북 괴산군 청안면 제비마을)



▲괴산군 제비마을부흥 권역센터 간담회 (2024. 7. 19.)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활동내용

■ 현장활동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제비둥지)



▲ 부흥리 농촌유학 가족주택 단지 '제비둥지' 견학 (2024. 7. 19.)



활동내용

■ 현장활동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백봉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관계자 간담회 및 견학 (2024. 7. 19.)

목차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8
제1절 연구의 개요	21
1. 연구의 명칭	21
2. 연구의 개요	21
3. 연구의 목표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1. 연구 범위	22
2. 연구 진행(체계)	23
3. 현장활동	23
제2장 일반현황 분석	27
제1절 담양군 일반현황	27
1. 담양군 기본현황	27
2. 담양군 인구 기본현황	30
3. 담양군 인구 정책	31
제2절 담양군 인구소멸 현황 분석	40
1. 지방소멸과 담양군 현황	40
2. 담양군 인구소멸 여건	42
3.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	44
4. 담양군 인구소멸 SWAT 분석	57
제3장 담양군 농촌유학 여건 분석	60
제1절 농촌유학의 개요 및 정책	63
1. 농촌유학의 개요	63
2. 전라남도(교육청) 농촌유학 정책	64
제2절 담양군 농촌유학 여건 분석	69
1. 담양군 소멸위기 학교 현황	69
2. 담양군(교육청) 농촌유학 기본현황	69
3. 담양군(교육청)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	71
4. 담양 농촌유학 시행 학교	75
- 금성면 【금성초등학교】	75
- 용 면 【용면초등학교】	77

- 대덕면 【만덕초등학교】	79
- 봉산면 【봉산초등학교】	82
- 월산면 【월산초등학교】	84
5. 담양 농촌유학 SWAT 분석	86

제4장 국내 인구소멸 대응 농촌유학 선진지 현장활동 90

제1절 농촌유학 성공사례 현장활동	93
1.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초등학교】	93
2. 전남 곡성군 오산면 【도담마을】	102
3.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	108
4. 충북 괴산군 청안면【제비마을 부흥권역】	112
5. 기타 성공사례 지역	121
- 해남군 북일면 【북일초등학교】	121
- 기타 수범 사례 학교	123
제2절 농촌유학 연계 인구소멸 대응 수범사례 현장활동	131
1. 전남 곡성군 오곡면 【스테이션 1928】	131
2. 담양군 대전면 대안학교【잇다자유발도르프】	137

제5장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144

제1절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147
1.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필요성	147
2.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향성	148
3.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비전과 목표	150
제2절 담양군의회 연구단체 의원 의견	152
• 박은서 대표의원	152
• 장명영 의원	154
• 박준엽 의원	155
• 책임연구원 및 기타의견	157

제6장 남겨진 과제(향후 추진과제) 160

• 향후 추진과제	163
• 결론	166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01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명칭
2. 연구의 개요
3. 연구의 목표

제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 범위
2. 연구 진행(체계)
3. 현장활동



담양읍 전경



01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명칭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 연구의 개요

- 친환경 생태전원도시 담양군의 좋은 여건과 연계한 가장 효율적인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군 인구유입 및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담양군의 현행 인구늘리기 정책과 연계시켜 소멸위기의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담양군의 농촌유학 현황을 점검하고 선도적 성공사례를 접목, 담양 고유의 농촌 유학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임.

3. 연구의 목표

- 담양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 담양군 소멸위기 학교의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담양군

(2)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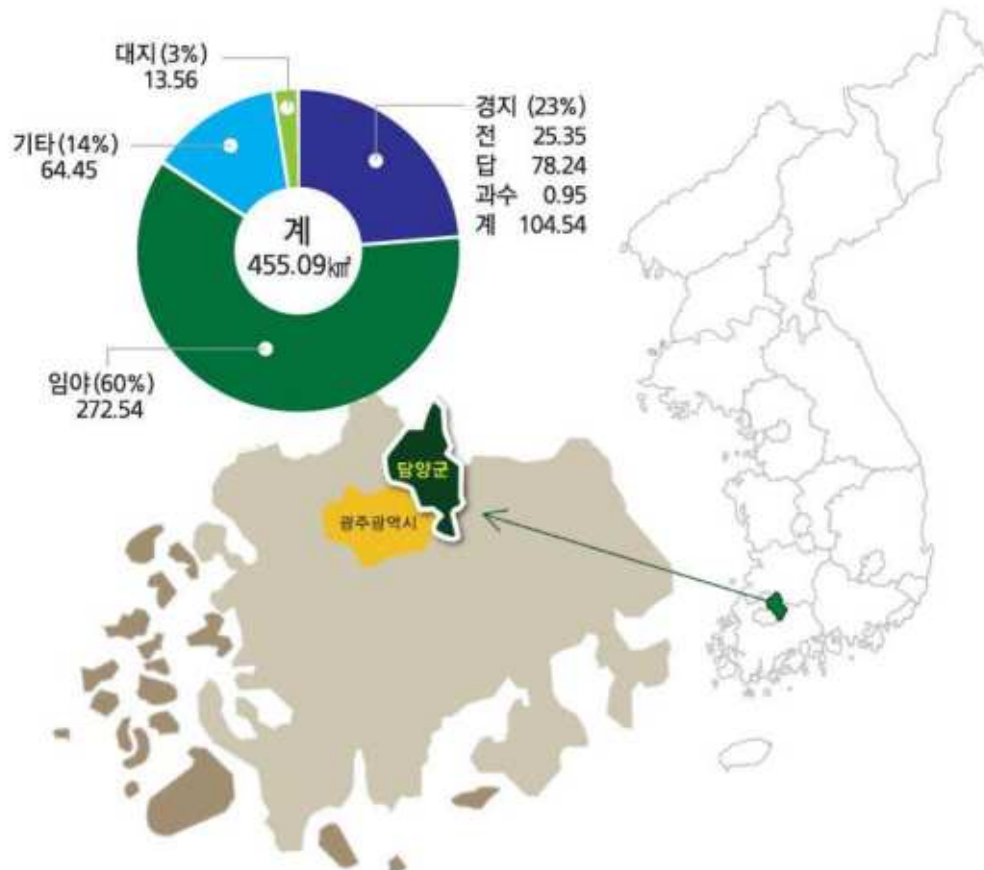
- 담양군 인구감소 현황 분석 및 인구소멸 대응정책 발굴
- 담양군 소멸위기 학교 현황 분석
- 담양의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도출

(3) 연구용역 기간 : 2024년(4월~ 11월)

(4) 참여의원(3명) : 박은서 대표의원, 장명영 의원, 박준엽 의원

담양군 인구 및 면적 2023. 12. 31. 기준

세대수	총 인구수	주민등록 인구수			외국인수			65세 이상 (외국인 제외)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4,557	46,559	45,373	22,961	22,412	1,186	647	539	15,373



2. 연구 진행체계

기본계획 진행	• 기초자료 분석
일반현황 분석	• 담양군 일반현황 • 담양군 인구소멸 현황
사업 기본구상	• 담양 농촌유학 정책 및 현황 • 담양 농촌유학 여건 및 SWOT 분석 • 담양 농촌유학 시행학교
현장활동	• 농촌유학 선진지 사전조사 및 간담회 • 인구소멸 대응 농촌유학 선진지 현장활동
활성화 계획	• 담양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 담양 인구소멸 대응정책 활성화 방안 •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의견
중간보고	• 연구결과 중간보고
남겨진 과제 (향후 추진과제)	• 향후 발전 방안 제시 • 결론 및 제언
최종보고	• 연구결과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	• 연구결과 보고서 납품

3. 현장활동

- 간담회 : 농촌유학 선진지역 사전답사 및 간담회
- 현장활동 : 인구소멸 대응 농촌유학 활성화 성공사례 지역 방문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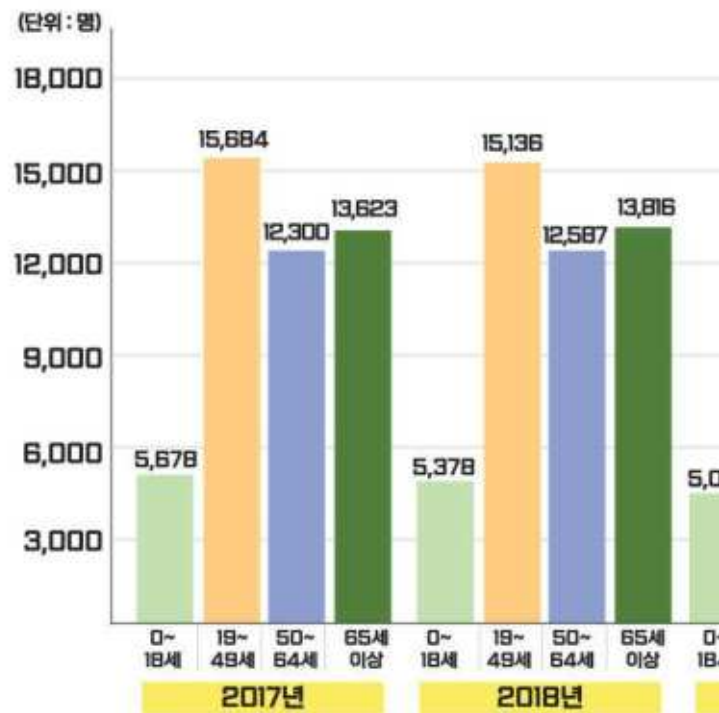
일반현황 분석

제1절 담양군 일반현황

1. 담양군 기본현황
2. 담양군 인구 기본현황
3. 담양군 인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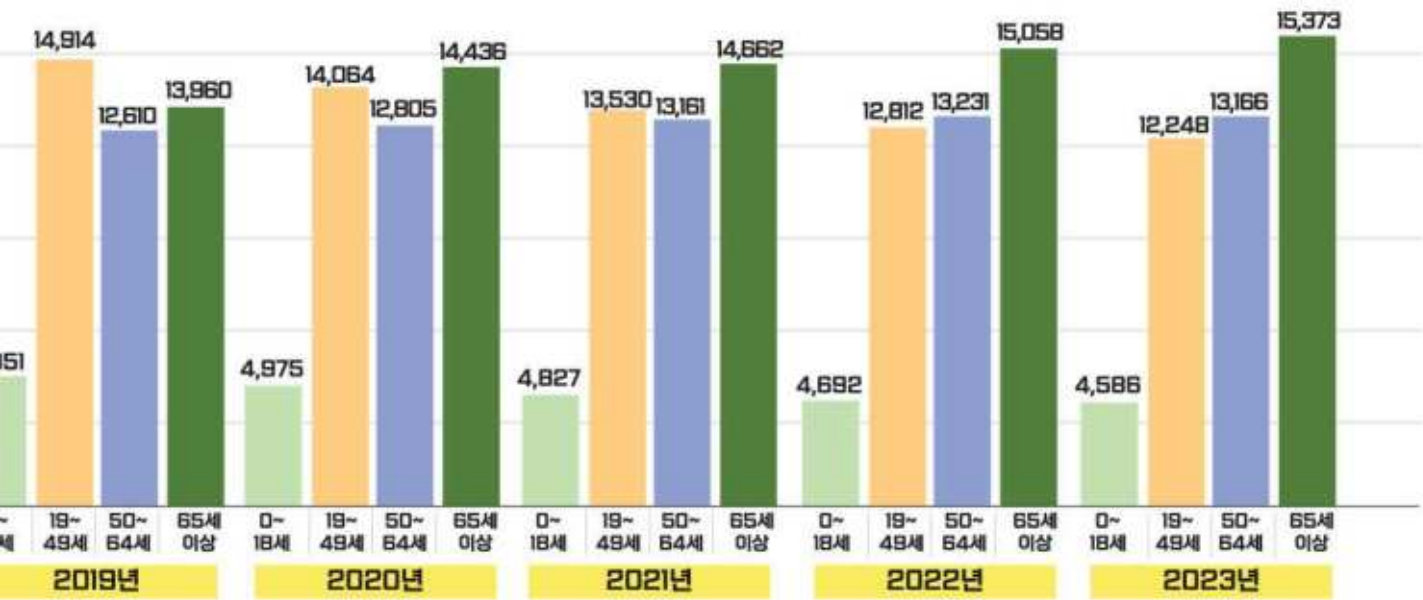
제2절 담양군 인구소멸 현황 분석

1. 지방소멸과 담양군 현황
2. 담양군 인구소멸 여건
3.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
4. 담양군 인구소멸 SWAT 분석



담양군 인구 증감 (연령별)

- 0~18세 (유소년 인구)
- 19~49세 (청년인구)
- 50~64세 (중장년인구)
- 65세이상 (고령인구)



02 일반현황 분석

제1절 담양군 일반현황



1. 담양군 기본현황

(1) 담양군 입지적 위상

담양군은 광주광역시 북쪽에 인접해 있으며, 영산강 최상류 지류인 증암천과 용천, 담양천 등 여러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담양군의 중앙은 비교적 넓고 비옥한 평야로 되어 있다. 북쪽에는 노령산맥의 추월산, 금성산, 광덕산 등 여러 험난한 산들이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이 산맥의 지맥인 병풍산, 불대산 등이 있고 남동쪽은 국수봉과 무등산

의 여맥이 솟아 있으며 전남평야와 연접하여 담양분지를 구성하고 있다.

담양군의 동남쪽은 곡성군, 서쪽은 장성군, 남쪽은 광주시와 화순군, 북쪽은 전북 순창군과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원, 전주, 순천 등 중소도시와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인구 160만명의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및 전남 북부 교통의 중심지로서 교통망이 잘 발달해 있어 지역간 교류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등 전라남도의 관문 역할과 접근성이 뛰어난 시통팔 달의 교통허브 지역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에 첨단문화복합단지인 담빛 문화지구가 조성돼 향후 입주민 4천여 명이 생활하는 신시가지로 발전할 전망이며, 고서면 보촌리에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이 또한 인구 1만여 명에 달하는 신시가지와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담양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광주광역시 인접성이라는 입지적 요인으로 인구유입 기대와 인구유출 방지를 바탕으로 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적 역량이 내제되어 있다.

(2) 담양군의 기후

담양군의 기후 특성은 남부내륙형 기후구에 속하며 온대 남부 산림대에 속해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은 14.6도이다. 1월 평균기온이 1.1도로 1년중 가장 낮고 8월 평균기온은 26.1도로 가장 높다.

연평균 강우량은 1,467mm로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해 담양군의 이같은 기온과 강수량은 예로부터 사람이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후조건일 뿐 더러 벼농사나 작물의 재배 환경에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단히 살기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3) 담양군의 산업적 위상

담양군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하고 있어 전통적인 도시근교형 농업이 발달했으나 최근들어 1, 2차 산업 보다는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 인문학자원이 풍부해 생태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 및 융복합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다.

문화관광산업에서 담양군은 담양읍권 관광지구, 관광레저휴양지구, 청소년수련지구, 역사문화전통지구 등 권역별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방문객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맞춰 펜션, 민박, 카페 등 숙박 및 힐링 휴양 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담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전국적으로도 명소로 알려진 죽녹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메타프로방스, 관방제림, 면양정, 소재원, 송강정, 슬로시티 창평 등이 있으며 대숲맑은도시 담양을 상징하는 많은 대나무숲과 더불어 생태도시 담양을 대변하는 담양습지 대나무숲 자생군락지가 있다.

담양읍권, 담양호권, 슬로시티창평권, 가사문화권 등 권역별로도 관광지가 집중돼 있고 권역별로 거리가 멀지 않아 관광 콘텐츠화 역량이 집약돼 있다.

담양군의 특산물로는 대나무 가공품, 죽순, 한과, 창평엿, 땃잎차 및 과실류(딸기, 단감, 포도, 방울토마토, 멜론) 등이 있어 농업소득 뿐 아니라 관광상품으로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담양군 대표 관광지 인근을 중심으로 떡갈비, 국수거리, 국밥, 대통밥 등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풍부하며 관광산업의 역량은 전국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또한, 담양군은 전라남도의 중심지인 광주광역시와 인접해있고, 관문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관광객들의 출입 및 접근성도 굉장히 높다.

(4) 담양군의 지역 이미지

담양군은 자연생태도시와 인문학 교육특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자연이 하나되어 행복을 추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전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담양군의 이미지는 자연 생태도시로서의 모습이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담양의 대표적 생태자연 관광명소(죽녹원·메타가로수길·관방제림 등)

2002년부터 지속가능 발전 생태도시 정책을 추진, 2004년 환경부 그린시티 선정 및 하천보호 습지보호구역 지정, 2014년 중앙정부로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시범지역 선정됐으며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및 지속가능 발전 생태도시 담양선언 채택 등 국내 생태도시의 선도지역이다.

이렇듯 담양군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도시 인근에 있음에도 전통과 자연자원의 보존상태가 훌륭해 문화, 관광 자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고장이다.

2. 담양군 인구 기본현황

담양군은 행정구역상 12개 읍면으로 구분되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담양군의 전체 세대수는 24,557세대, 인구는 45,373명이다.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어 1,186명으로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담양군의 인구는 4만5천명 선에서 약간씩 증감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남도내 농촌지역 타 지자체에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담양군 인구가 4만 5천명선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년층의 감소와 일자리 부족, 저출산 문제와 보육환경 미흡, 초고령화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담양군 통계에 의하면, 2023년말 기준 청년층 인구는 12,248명으로 전체인구의 27%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5,373명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고령인구에 편입되는 50~64세 중장년 인구도 13,166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어 중장년과 고령인구를 합하면 무려 62.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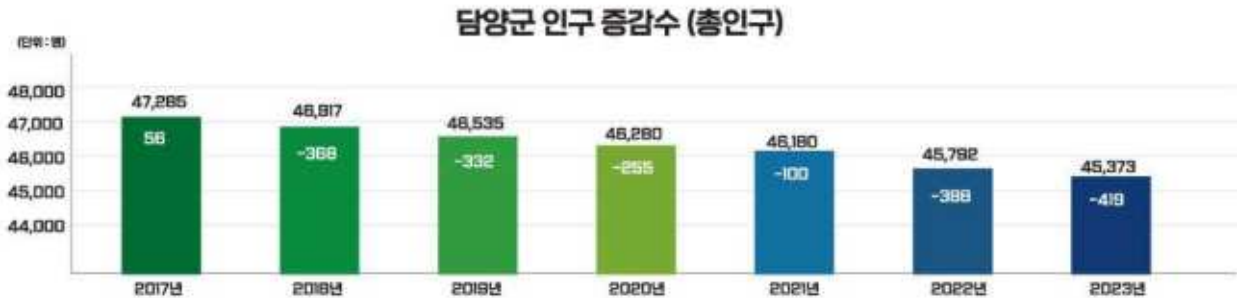
또한, 담양군 인구의 사망률은 하루 1.71명인 반면 출생률은 0.4명에 불과해 태어나는 인구 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무려 4배 이상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1일 전출입 상황을 보면, 전입이 10명인 반면 전출은 9.97명으로 전출입 인구가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담양군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전원주택 조성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됐거나 추진중이지만 이에따른 인구 증가는 그다지 성과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담빛문화지구(680세대)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규모 전원주택단지(772세대)가 조성되고, 또 는 읍면 곳곳에 적게는 200~300세대, 많게는 800~9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해도 외부의 유입인구 보다는 담양군 관내 자체 인구의 수평이동이 대부분이거나 잠재적 공실률이 적지 않아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담양 관내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주택거주자 또는 면지역 농촌마을 거주자들이 좀 더 편한 생활을 위해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며, 경관이 좋은 면 지역에 짓는 전원주택의 경우도 인근 광주권 도시민들이 담양 정착을 위한 영구거주 보다는 주말에만 이용하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인 아파트단지 조성 및 주택 건축이 진행되면서도 담양군의 인구는 크게 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담양군 인구 정책

담양군은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접근성으로 인해 생활인구 등 인구 이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쾌적한 생태 자연환경과 더불어 풍부한 역사문화유적, 대도시 못지않은 문화예술 공간, 힐링휴양 공간의 최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광주권을 비롯 전국적으로도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전원주택 입지 및 귀농·귀촌 지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크게 늘



지 않고 소폭의 등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년인구의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도시 못 미치는 교육 및 의료환경의 열악, 보육정책의 미흡에 따른 저출산 등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출에 비해 유입이 뒤따라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군이 추진중인 청년인구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담양군 지역현황

○ (광역입지) 광주광역시와 양호한 접근성으로 인구이동 활발

- 쾌적한 생태, 문화, 휴양공간 향유를 위한 인구유입

※ 연도별 방문자수

[단위: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방문자수	13,481,693	12,983,882	14,833,587	15,471,614	15,881,784

*출처 : 한국관광데이터랩(한국관광공사)

- 대도시권 생활 편의시설 및 취업을 위한 인구유출
 - 대규모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어 배후상권 잠재력 우수
- (생태도시) 풍부한 생태·인문학적 자원 및 친환경농업의 주산지
- 친환경농산물의 메카로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입 강점 보유
 -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1,082톤, 33억원)
 - 인문학교육 전통정원 특구지정, 슬로시티 등 인문학 원림도시
 - 슬로시티 군 전역화 재인증(2023. 6.)
 -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2023. 2.)
- (정주환경개선)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및 공동주택 조성 활기
- 고서 보촌지구(2,578세대) : 2020~2030 / 전남개발공사
 - 대덕 매산지구(500세대) : 2024~2028 / 군, 이스트라움(주)
 - 읍 삼만(94세대) : 2020~2025 / LH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 읍 지침(40세대) : 2022~2025 / LH / 통합공공 임대주택
- (청년인구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열악한 교육·의료환경
- 청년층 및 유소년 인구의 감소, 읍·면지역간의 격차발생
- (다문화가구 증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
- 담양다문화공동체센터 운영을 통한 마켓 및 문화체험 지원

2 주요 지원사업

1 전입지원

① 고등·대학생 기숙사비(월세) 지원사업

- 대 상 : 관외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기숙사(월세) 거주 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 250천원/학기당 (군비 100%, 3년간)
- 추진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원수(명)	80	62	8	8	48	178	286	269

②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사업

- 대 상 : 관외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군부대원(부사관 이상)
- 지원내용 : 관리비 200천원/1년 (군비 100%, 3년간)
- 추진실적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원수(명)	26	165	150	165	476	193	57

③ 전입세대 담양 공간꾸러미 지원사업

- 대 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한 세대
- 지원내용 : 4만원상당 물품(관급봉투 20매(20L), 담양쌀 1포(10kg))
- 2023년 지원실적 : 42건, 1,764천원 ('23.9월부터 시행)



2

임산·출산 지원

① 출산장려금 지원

- 대 상 : 출산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 지원내용

자녀수	지급시기	지급액(천원)	지급방법
첫째아	첫 돌	1,300	일시금
둘째아	첫 돌	2,200	
셋째아	첫 돌이후	10,000	2년 분할지급
넷째아	첫 돌이후	15,000	3년 분할지급
다섯째아	첫 돌이후	20,000	4년 분할지급
여섯째아 이상	첫 돌이후	25,000	5년 분할지급

② 임신부 및 출산가정 지원

- 임신부 산전검진 : 최대 169천원 검진권 지원
- 출산 축하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육아물품 지원
-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임신12주까지), 철분제 지원(출산시까지)
-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480천원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튜브 예방크림 지원 : 예방크림 3회 지원
-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 중위소득 80%초과한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24개월까지 월 9만원 지원(※ 80%미만은 국비지원)
- 가임기여성 지원 : 풍진검사 및 영양제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 출산 및 예정 여성농업인 최대 70일 도우미 지원

〈참고〉 연도별 출생 추이

[단위 명]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 생	273	238	240	155	147	195
합 계 출산율	1.38 (전남내 8위)	1.26 (전남내 12위)	1.33 (전남내 10위)	0.90 (전남내 18위)	0.86 (전남내 17위)	1.13 (전남내 9위)

3 청소년·교육 지원

① 담빛 청소년 문화의 집

- 이용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 주요시설 : 북카페, 코인노래방, DVD실, 체력단련실, 밴드연습실 등
- 내 용
 - 문화강좌, 방학체험교실,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교실 등 운영
 -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지원센터·상담복지센터 운영

②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담양사랑상품권 / 1회지급)

③ 미래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 작은학교 살리기 특별프로그램 지원
 - 작은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작은 학교 경쟁력 강화
 - 작은학교 살리기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담양 구현
- ※ 담양군 작은학교 : 11교(초 9교, 중 2교)

<참고1> 2023년 작은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학교 실적

연번	학교명	운영 내용	농촌유학 및 전입학생
1	금성초	셋별 6대 도전 프로젝트 (수영, 스키, 드론, 승마, 자전거, 국외 체험)	4명 (3명은 가족 전입)
2	용면초	꿈·끼·감성이 머무는 용면삼색 행복교육 (전교생 오케스트라, 도전 활동, 국외체험)	
3	월산초	달되동(童), 인(人)문(文)학(學)으로 비상하다 (나도 작가 프로젝트, 학년군별 제주살이)	3명 (2명은 가족 전입)

<참고2> 2024년 작은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운영 내용(계획)
1	봉산초	봉산 아이(AI)다움(D·AU·M) 프로젝트
2	만덕초	Hello! Buddy! -영어특화교육
3	고서초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학교
4	금성초	샛별 4대 도전 프로젝트
5	용면초	용면삼색 행복교육
6	월산초	달뫼동(童), 인(人)문(文)학(學)으로 비상하다
7	담주초	감성중심 문화예술교육
8	무정초	오방색(지,의,신,인,예) 프로젝트
9	가사문학초	4계절 소리 생태환경교육

○ 종로국제서당 청소년교류사업

- 온라인 영어 특화교육 : 온라인 영어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
 - (학습기간) 5개월('24년 4월~8월)
 - (수업료) 학생 부담금 0원(영어 프로그램 및 관리 무료 지원)
- 국제서당캠프 : 주한 대사관 외교프로그램 참여, 영어토론발표회 개최 등
 - (운영기간) 5박6일('24년 8월 방학기간 중) / 기수당 10명
 - (캠프장소) 종로구 내 한옥 도서관 등

<참고3>

◎ 제1회 종로국제서당 교류 추진 (2023. 4. 1. ~ 8. 31.)

- 담양군-서울 종로구 「종로국제서당」 교류활동 지원사업
- 참여자 : 35명(청년멘티 15, 담양군 8, 종로구12)
 - ※ 중학생 또는 2008~2010년 출생 청소년
- 영어특화온라인교육(2023.4.1.~8.31.), 국제서당캠프(2023.8.9.~8.12.)
 - ※ 국제서당캠프 : 주한 미대사관, 성균관 탐방, 종로구 문화재, 영어발표회 등



국제서당캠프(입학식)



국제서당캠프(주한 미 대사관 방문)

4 청년 및 일자리 지원

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담양읍 객사4길 33
- 주요시설 : 사무실(상담실), 교육장
- 지원내용 : 취·창업 관련 정보 연계 및 구직자 구직활동 지원

②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급(도비사업)

- 대 상 : 1명 이상 초혼인 만 49세 이하 부부(도내 6개월이상거주)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③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도비사업)

- 대 상 :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 등 지원대상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주택을 구입한 자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최대 8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1억원 이하
-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 이상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25만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3년)

④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도비사업)

- 대 상 : 근로경력이 있는 만18~45세이하 청년(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매월 일정금액(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3년간 지원 적립
*매월 20만원(본인 10, 지원 10), 3년간 적립

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도비사업)

- 대 상 : 근로경력이 있는 전월세 거주중인 만18~45세(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내용 : 월 200천원 (12개월)

⑥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도비사업)

- 대 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8세 청년
- 지원내용 : 문화복지비 연 25만원(체크카드)

5

귀농·귀촌 지원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 상 : 농촌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 농업창업(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75백만원)
- ※ 재 원 : 융자 1.5% 또는 변동금리

②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대 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5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지원(난방, 도배, 장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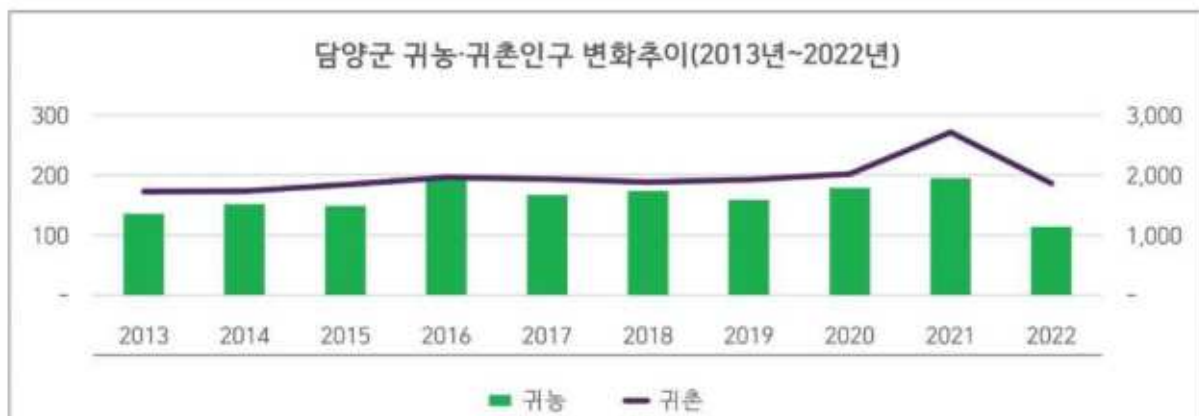
③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생애 첫농업인 행복지원 : 농자사설하우스, 주택 등 임차료 지원(최대 5,000천원/1년)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 만 40세 이하 본인 명의 시설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만 40세 미만 독립영농기간 3년 이하 청년 월 최대 100만원 정착지원금지원(최장3년간)

<참고> 연도별 귀농·귀촌인수

[단위: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귀농	135	151	148	191	166	173	158	178	194	113	1,607
귀촌	1,725	1,730	1,838	1,959	1,932	1,882	1,920	2,015	2,710	1,858	19,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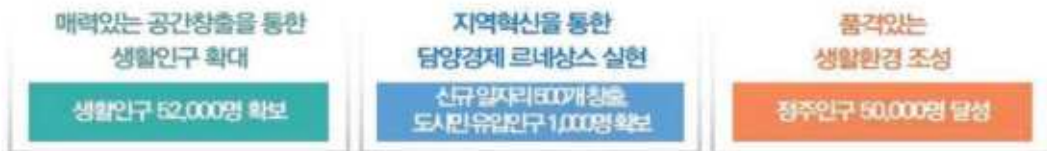
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추진근거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023. 1. 1.시행) 근거
- 기본계획 : 2022 ~ 2026년(5개년) *시행계획 2023년
- 수립절차 : 기본계획 수립('23.1~'23.5) ⇨ 주민의견청취('23.5.)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23.5.) ⇨ 전라남도 협의('23.6.)
- 전략의 구상

비전

모두가 행복한 **녹색 명품 도시, 담양**

목표



전략



실천 과제



(※ 자료출처 : 담양군)

제2절 담양군 인구소멸 현황 분석

1. 지방소멸과 담양군 현황

(1) 지방소멸의 개념

지방소멸(地方消滅)은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지방(지방도시 및 농촌지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로의 이주와 출산을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쇠퇴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 감소

지방에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젊은 층의 유출이 크며, 특히 대도시로의 이동이 활발하다.

▶출산을 저하

지방의 출산을 저하는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시킨다.

▶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한다.

▶경제적 쇠퇴

인구 감소와 상업 활동의 축소는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사회 인프라의 붕괴

인구 감소에 따라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지방에서의 출산장려 및 정주환경 개선,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지난 2021년에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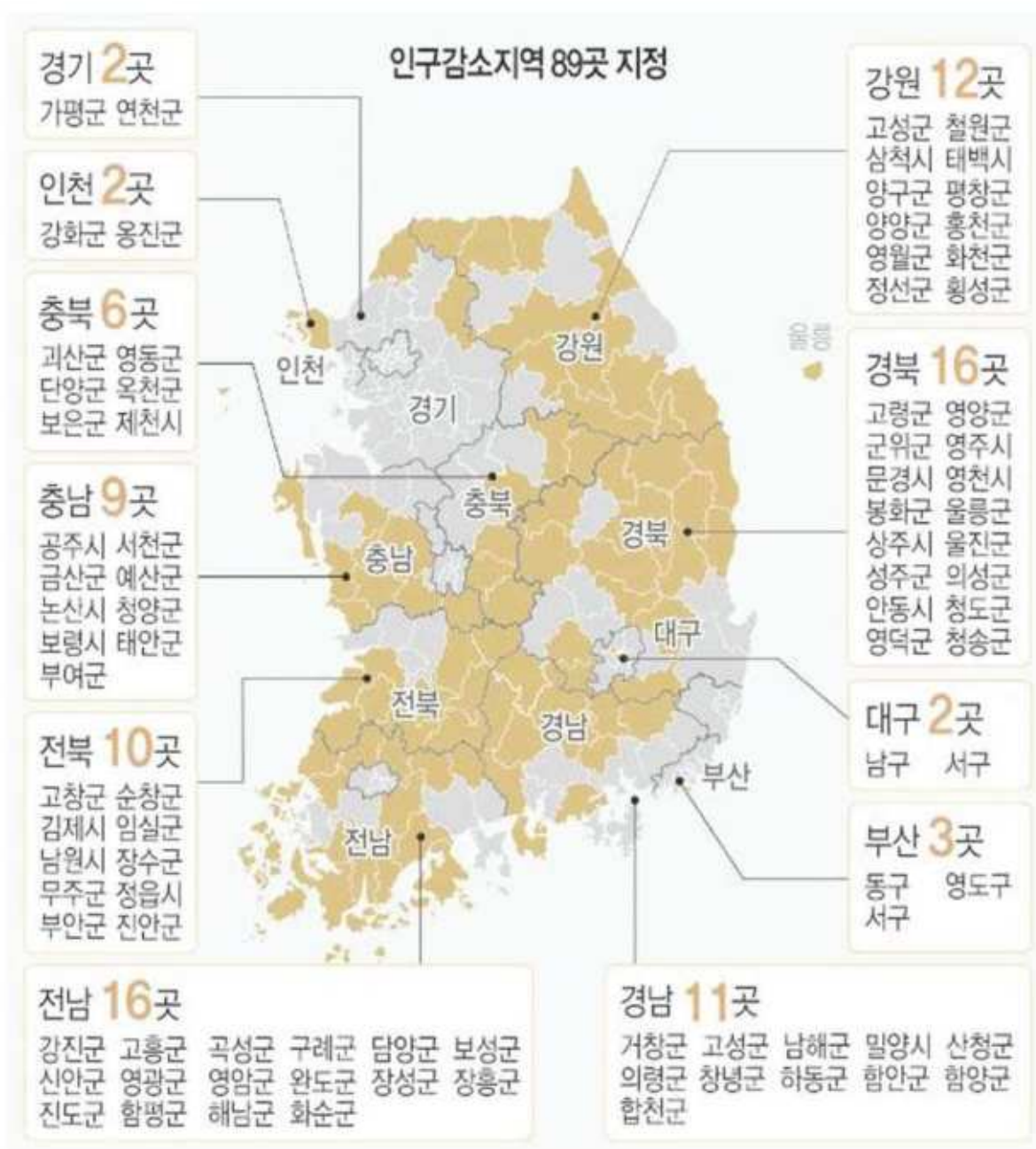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차등화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해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인구감소 지역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는 담양군을 포함해 전국 89개 지자체이며, 관심지역은 18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에 대한 5개 평가등급을 구분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해 지급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등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따라 담양군은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으로 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을 배분 받았다.



▲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현황

2. 담양군 인구소멸 여건

담양군의 인구 감소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로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청년인구 이탈 ▲출산율 저하 ▲고령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청년인구 이탈

- 도시 유출: 젊은 세대는 교육, 취업, 문화적 이유 등으로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인 담양군도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교육·취업 기회 부족: 농촌지역에서는 고등교육 및 다각화된 직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보다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자 도시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출산율 저하

- 출산·육아 지원 부족: 농촌지역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담양군 또한 청년층 감소와 더불어 출산률도 낮은 편이며 도시 지역에 비해 육아정책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고 있는 현실이다.
- 결혼연령 상승: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연령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출산율 저하가 보편화 되고 있다.

• 인구 고령화

- 고령인구 증가: 젊은 인구의 유출은 상대적으로 농촌에 남아 있는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담양군의 경우도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35%에 육박하고 있다.
- 의료·복지서비스 미비: 도시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를 지탱할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부족해 생활여건이 악화되면서 육아를 책임지는 청년층은 물론이고 귀농귀촌으로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한다.

• 경제적 요인

- 농업의 쇠퇴: 전통적인 농업경제는 글로벌화와 자동화 등 스마트농업의 발전과 그 영향으로 농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지역경제 기반약화: 농촌지역의 경제기반이 취약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도시 지역으로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사회적 요인

- 문화·여가시설 부족 : 다양한 문화 및 여가 시설이 부족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주민들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도시 지역에 이주해 살고자 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 사회적 인프라 미흡 :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은 교육, 의료, 교통 등 필수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함에 따라 육아를 위한 청년층은 물론이고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중요시 하는 실버세대의 도시지역 거주 선호가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 정책적 요인:

- 지속적인 정책지원 미흡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농촌재생 및 인구증가 정책이 드물거나, 현실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의 부재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담양군의 인구가 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소폭의 감소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3.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

담양군은 인구감소 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 등 모두 112억원을 지원 받아 5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담양군의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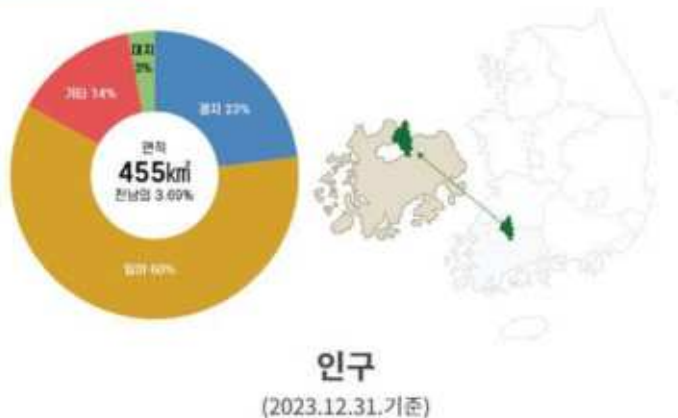
청년이 그린마을 조성사업으로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30억원)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1억5천만원) ▲청년농부 육성(34억7천만원) ▲대숲맑은 담양 디저트산업 활성화(1억원)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청년창업을 통해 담양형 관광산업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58억 5천만원을 투입해 빈점포 활용을 위한 담양특화거리를 조성한다.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3억원) ▲고서초 창의융합 플랫폼 조성 (8억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어른·어린이·청년을 위한 공간인 세대어울림센터 조성사업(64억4천400만원), 서울·광주광역시 등 도시 유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담양군 인구정책 기본현황



45,373명
외국인수 1186명(총인구의2.6%)



24,557세대

담양의 하루 (2022년 통계자료 기준)



주민등록추이

연령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령별 비율
계	47,285	46,917	46,535	46,280	46,180	45,792	45,373	100%
증감인원	56	△ 368	△ 332	△ 255	△ 100	△ 388	△ 419	
0~18세 [유소년인구]	5,678	5,378	5,051	4,975	4,827	4,692	4,586	10.1
19~49세 [청년인구]	15,684	15,136	14,914	14,064	13,530	12,811	12,248	27
50~64세 [중장년인구]	12,300	12,587	12,610	12,805	13,161	13,231	13,166	29
65세이상 [고령인구]	13,623	13,816	13,960	14,436	14,662	15,058	15,373	33.9

결혼·임신·출산 정책

결혼

●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급

- 대상 : 1명 이상 초혼인 만 49세 이하 부부
- 22. 7. 4.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단, 6개월 이상 도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충족 후 신청)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담양소통실 연구청년정책팀 ☎ 380-3222

●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주택을 구입한 자
- 거주요건 :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최대 8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1억원 이하
-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 이상
- 사업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25만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3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참여소통실 인구청년정책팀 ☎ 380-3222

● 지원대상 상품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
	상품종류	u-보금자리론	어필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다임돌	다임돌
심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

임신·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 지원내용

자녀수	지급시기	지급액(천원)	지급방법
첫째아	첫 돌	1,300	일시금
둘째아	첫 돌	2,200	일시금
셋째아	첫 돌이후	10,000	2년 분할지급
넷째아	첫 돌이후	15,000	3년 분할지급
다섯째아	첫 돌이후	20,000	4년 분할지급
여섯째아 이상	첫 돌이후	25,000	5년 분할지급

※ 지원방법 : 현금지급 50%, 담양사랑상품권 50%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청부24 출산 서비스 통합차리 신청
-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380-3976

육아 정책

육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임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케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380-3976

● 신생아 의료서비스

- 지원내용
 - 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 본인부담금 1회
 - ② 청각신별검사 - 본인부담금 1회
 - ③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검사
- 신청방법: 보건(지)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역관리팀 ☎ 380-3978

● 영유아 예방접종

- 대 상: 만12세 이하 어린이
- 접종시간: 월~금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6:00
- 실시기관: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 문 의 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380-3985

●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 대 상: 만6세 미만 영유아
- 검진내용: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 검진기관: 담양사랑병원, 나눔내과의원(무료)
- 문 의 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380-3993

● 부모급여 지원

- 대 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 > 연 금: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 > 바우처: (0세) 보육료 54만원 + 현금 46만원 / (1세) 보육료 47.5만원 + 현금2.5만원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함춘복지과 여성가족팀 ☎ 380-2633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 아동수당 지원

- 대 상: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아동, 최대 96개월)
- 지원내용: 매월 25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함춘복지과 여성가족팀 ☎ 380-2644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 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 양육수당: 10만원/월
 - > 농어촌양육수당: 10~15.6만원/월
 - > 장애아동 양육수당: 10~20만원/월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함춘복지과 여성가족팀 ☎ 380-2633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대 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영유아
- 지원내용
 - > 부모보육료 280천원~540천원
 - > 기관보육료 280천원~587천원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함춘복지과 여성가족팀 ☎ 380-2633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 아이돌봄 서비스

- 대상 : 만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지원내용
 - > 시간제(일반형) : 연 960시간 지원/보육, 놀이활동, 학교 및 보육시설 하원 등
 - > 영어종일제 : 월 80~200시간 지원 / 이유식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
 - ※ 이용단가 : 1시간 11,630원 / 중위소득기준 가-라형 차등부담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여성가족팀 ☎ 380-2632 / 아이돌봄지원센터 ☎ 381-1821

● 공동육아 나눔터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 대상 : 만 7세미만 미취학아동
- 지원내용 : 자녀돌봄 공간제공 및 상시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무료대여
- 신청방법 : 공동육아나눔터 방문신청(여성회관 4층)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여성가족팀 ☎ 380-2652 / 담양군 가족센터 ☎ 383-3655

청소년 · 교육 정책

청소년 · 교육

● 담빛 청소년 문화의 집

- 위치 : 담양읍 지침6길 29
- 이용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토 (09:00~17:00)
- 주요시설 : 북카페, 코인노래방, DVD실, 체력단련실, 밴드연습실 등
- 내용
 - > 문화감각, 방학체험교실,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교실 등 운영
 - >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380-2642 / 담빛 청소년 문화의 집 ☎ 383-1387



- > 주소 : 담양읍 지침6길 29
- > 규모 : 연면적 2,627.86㎡
- > 시설 : 북카페, 코인노래방, DVD실, 체력단련실 등
- > 프로그램 : 문화감각, 체험교실, 동아리 등
- > 개관시간 : (월~금) 09:00~18:00 / (토) 09:00~17:00
- > 문의 : ☎ 383-1387

● 담빛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위치 : 담양읍 지침6길 29(담빛청소년문화의집 2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및 일반가정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6학년)
- 운영시간 : 방과 후 ~ 21시(1일 5시간), 주 5~6일 운영
- 내용 : 4개 분야(학습지원, 생활지원, 자기개발활동, 전문체험활동)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380-2642 / 담빛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383-4943

● 청소년 지원·상담센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위치 : 담양읍 지침6길 29 (담빛청소년문화의집 3층)
- 이용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운영)
- 문의처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381-138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위치 : 담양읍 자침6길 29 (담양청소년문화의집 3층)
- 이용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3개월 이상 결석, 퇴학 및 자퇴, 미진학 등 학교 밖 청소년)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내 용
 - > 개인 및 부모상담, 건강고사, 학습 멘토링, 대학진학 지원
 - > 진로상담, 진로교육, 직업체험, 훈련지원 등 취업지원
- 문 의 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381-0924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대 상 : 만 9~24세 여성청소년
- >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원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연 최대 150,000원 (월 12,000원 ~ 13,000원)
- 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전자적 형태의 이용권(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받 분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온 라 인 : 복지포 사이트(<http://www.bokjiro.go.kr>)
- 문 의 처 : 향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380-2642

● 다양한 장학사업

- 대 상 : 본인 및 부모가 3년 이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계속 두고 있는 초·중·고 대학생
- 지원금액 : 초 30~50만원, 중 70만원, 고 100만원, 대 200만원
- 신청시기 : 매년 2월
- 선정시기 : 매년 3월
- 선발방법
 - > 초·중·고등학생 :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
 - > 대학생 : 성적 30%, 소득기준 70% 등 배정기준에 따라 (재)담양장학회 이사회 심의·선정
- 문 의 처 : 행정과 인문학교육팀 ☎ 380-3186

● 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19세 이상 담양군민
- 지원내용 : 행복학습센터 및 동아리 운영을 위한 감사비 지원
- 문 의 처 : 행정과 인문학교육팀 ☎ 380-3188

●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 대 상
 -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재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 ※ 타시군에서 담양군으로 전학 온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담양사랑상품권 / 1회지급)
- 신청자 :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친권자(부모·조부모 등), 후견인, 위탁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절차 : 입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문 의 처 : 행정과 인문학교육팀 ☎ 380-3186

● 인재양성을 위한 담양식 맞춤형 교육지원

- 대 상 : 담양교육지원청 외 28개교(초·중·고, 대안교육시설)
- 지원내용 : 학력향상, 인문활동, 특기적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4개 분야 29개 사업 지원으로 사교육비 절감
 -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력향상
 - 방과후 드림스쿨, 수준별 수업지원, 영어영재캠프, 교복지원 등
 - > 창의, 인성문화체험 프로그램
 - 인문학 문화체험, 마을학교 운영, 방과후 교실, 진로체험 등
 - > 특기적성 및 특화프로그램
 - 외국어 체험센터, 방과후 외국어교실, 역가·과학 프로그램
 - > 청소년 국제교류, 우호교류
- 문 의 처 : 행정과 인문학교육팀 ☎ 380-3186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

- 대 상 : 주소지가 담양군이며, 만18~45세이하 청년
- >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
-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매월 일정금액(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3년간 지원 적립
- *매월 20만원(본인 10, 지원 10), 3년간 적립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 참여소통실 인구청년정책팀 ☎ 380-3222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대 상 :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중인 만18~45세 이하 청년
- >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
-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월 200천원 (12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 참여소통실 인구청년정책팀 ☎ 380-3222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 대 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8세 청년
- 지원내용 : 문화복지비 연 20만원(체크카드)
- 신청방법 : 농협은행 누리집(온라인)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 참여소통실 인구청년정책팀 ☎ 380-3222

● 관내 고교·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대 상 : 관외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관내 고등·대학교 기숙사 또는 월세주택 거주 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 250천원/학기당
- 신청방법 : 소속 학교 신청
- 문 의 처 : 참여소통실 인구청년정책팀 ☎ 380-3216

● 관내 군부대원 주거 관리비 지원

- 대 상 : 관외 전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관내 군부대원
- 지원내용 : 독산자 아파트 관리비 200천원/1년
- 신청방법 : 소속 군부대 신청
- 문 의 처 : 참여소통실 인구청년정책팀 ☎ 380-3216

●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담양읍 객사4길 33
- 주요시설 : 사무실(상담실), 일반교육장, 전산교육장
- 지원내용
- > 취·창업 관련 정보 연계 및 구직자 구직활동 지원
-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추진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 ☎ 380-3130

●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 대 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 창업자
- 지원내용 : 지역자원조사 활동비,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jnlocalpick.kr) 접수 후 지원접수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 ☎ 380-3130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

- 대 상 : 담양군 거주 및 담양군 사업자등록한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신규인력 채용 시 월 최대 200만원 인건비 지급
- 신청방법 : (재)전남정보문화사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 ☎ 380-3129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 대 상 : 담양군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자탄소 산업 및 스마트공장, 친환경적 제조시스템 도입 등 지역 혁신·유망기업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 근무
* 인건비, 교육비, 청년 활동 지원, 홍보 등
- 신청방법 : (재)전남테크노파크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 ☎ 380-3129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

- 대 상 : 담양군 거주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담양 내 소재한 마을기업, 기술기업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 근무(인건비, 교육비, 청년 활동 지원, 홍보 등)
- 신청방법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 ☎ 380-3129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대 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전남에 주소를 둔 담양 소재 기업에 취업한 자
- 지원내용 : 4년간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 ☎ 380-3129

● 방학 중 대학생 인턴사업

- 대 상 : 담양군 거주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사업기간 : 매년 2회(겨울방학 1-2월, 여름방학 7-8월)
- 근무기관 : 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 ☎ 380-3130

●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대 상 : 담양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로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금 약정여율 중 연3%(연 200만원까지, 3년간)
- 신청방법 : 담양군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380-3122

● 소상공인 빈 점포 임대료 지원

- 대 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3백만원 이하 전부 또는 일부
 - ▷ 월 세 : 연간 임대료의 50%
 -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 적용금액과 임대료 합산금액의 50%
 - ▷ 전 세 :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금액의 50%
- 신청방법 : 담양군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380-3122

●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 대 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신규가입자
- 지원내용 : 매월 2만원씩 12개월(최대 24만원)
- 신청방법 : 노란우산공제회 신규 가입 시 지원
- 문 의 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380-3122

● 착한가격업소 지원

- 대상 : 관내 의식업, 개인서비스업 사업자
-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소모품 구입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 문의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380-3124

귀농·귀촌

귀농·귀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상 : 농촌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 농업창업(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75백만원)
- ※ 재원 : 융자 1.5% 또는 변동금리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 380-0122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5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세대
- 지원내용 : 주택수리(난방, 단열재, 화장실, 도배, 창판 등) ※ 단, 주택 본체에 한함
- 신청방법 : 읍·면 농업인상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 380-0122

● 생애 첫 농업인 행복지원

- 대상 : 2023. 1. 1. 이전 달양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영농기반 마련 농업인(1974.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농지·시설하우스, 주택 등 임차료 지원(최대 5,000천원/1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농업유통과 농업정책팀 ☎ 380-2713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 대상 :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만40세)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 380-0121

● 영농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 대상 : 4-H경력과 활동이 우수한 달양군 4-H회 임원 및 회원
- 지원내용 : 영농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기반 구축
- 신청방법 : 읍·면 농업인상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지원팀 ☎ 380-011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대상 : 만40세미만, 독립영농기간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농업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 작성 제출
- 문의처 : 농업유통과 농업정책팀 ☎ 380-2713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 대상 : 관내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인 농업인
- 지원내용 : 연 60만원 달양사발상동권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농업유통과 농업정책팀 ☎ 380-2714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75세 이하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연 20만원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농업유통과 농업정책팀 ☎ 380-2714

노인·여성

노인·여성

● 노인복지시설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 판정)
- 이용요금 : 본인부담금(시설 20%, 재가 15%)
- 노인요양시설
 - 양로시설
 - 시설명 : 예수마음의 집
 - 이용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장수지원팀 ☎ 380-2637
 - 요양시설 : 16개소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중 시설급여 인정자
 - 이용요금 : 기초수급자 무료, 건강보험대상자 20%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장수지원팀 ☎ 380-2637
- 재가장기요양기관·시설 : 24개소·9개소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중 재가급여 인정자
 - 이용요금 : 기초수급자 무료, 건강보험대상자 15%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장수지원팀 ☎ 380-2637
- 여가시설(복지관)
 - 시설명 : 담양군노인복지관
 - 이용대상 : 만60세 이상 담양군 거주 어르신
 - 운영사업 : 사회교육, 건강증진, 정서생활 지원 등
 - 문의처 : 담양군노인복지관 ☎ 380-1300

● 노인대학 운영

-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 대상 : 만 65세 이상
 - 신청기간 : 3월 ~ 12월
 - 주요내용 : 교양과목, 건강관리, 노인문화 등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장수지원팀 ☎ 380-2596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1월 ~ 12월
- 내용 : 건강체조(강사 직접 경로당 방문)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향촌복지과 향촌복지팀
- 문의처 : 향촌복지과 향촌복지팀 ☎ 380-2594

●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

- 대상 : 60세 이상 국가기초생활 수급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부부 세대 중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주 1~5회 급식 제공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 문의처 : 향촌복지과 향촌복지팀 ☎ 380-2594

● 장수지팡이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 지원방법 :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향촌복지과에서 장수지팡이(절러장) 수령 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
- 문의처 : 향촌복지과 향촌복지팀 ☎ 380-2595

● 장묘시설

- 갑천공원
 - 위치 : 담양군 대전면 주성로 468
 - 주요시설 : 봉안시설(10,418기), 매장(200기), 관리사무소
- 오룡공원
 - 위치 :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409
 - 주요시설 : 봉안(5,400기), 매장(344기), 자연장(800기), 관리사무소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장수지원팀 ☎ 380-2638

● 여성화관 운영

- 운영기간 : 상반기(3~7월), 하반기(9~12개월)
- 대상 : 담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 내용 : 취·창업 및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담양군청 온라인접수 및 여성화관 방문접수
- 문의처 : 향촌복지과 여성가족팀 ☎ 380-2773

문화·여가

문화·여가

● 달빛 예술창고·달빛 역사관·관객체험관

- 위치 : 담양읍 객사 7길 9
- 예술창고 : 미술전시, 파이프오르간 연주, 카페
- 역사체험관 : 아카이브관, 체험·전시관 (2층)
- 문의처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380-2802

● 해동문화예술촌

- 위치 : 담양읍 지침 1길 10
- 내용 : 해동주조장, 추자해(구 담양의관), 아르코공연연습센터(구 읍교회), 문화창작공간 조성
- 문의처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380-2802

● 인문학 가옥

- 위치 : 담양읍 객사 1길 7-4
- 내용 : 인문학, 문화지소 프로그램 운영
- 문의처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380-2802

● 달빛음악당

- 위치 : 담양읍 관방재림길 69
- 내용 : 문화행사, 휴식 공간
- 문의처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380-2805

● 담빛수영장, 담빛헬스장

- 위치: 담양읍 담장로 20
- 이용방법: 매일 회원제 운영
- 운영시간: 평일 06:00~21:00, 주말 08:00~18:00, 월요일 휴무
- 문의처: 담빛수영장 ☎ 380-2621~6, 담빛헬스장 ☎ 383-8331

● 담주 다미담 예술구

- 위치: 담양읍 담주4길 24-69일원
- 내용: 예술과 상업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거리 조성 운영
- 문의처: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380-3125

● 전라남도교육청 담양공공도서관



- 주소: 담양읍 미려산길 31-48
- 규모: 건물 2,794㎡, 영암석 576㎡
- 시설: 종합자료실, 강의실, 북카페
- 프로그램: 봄~겨울학기 평생교육강좌
- 개관시간: (화~금) 09:00~18:00 / (토~일) 09:00~17:00
- 문의: ☎ 383-7435

정주여건조성

정주여건 조성

●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

- 사업기간: 2014~2021
- 사업장소: 담양읍, 수북면 일원
- 사업내용: 주택단지 1,452세대(공동 680, 단독 772)
- 문의처: 투자유치단 투자유치팀 ☎ 380-3432

● 고서보존지구 도시개발

- 사업기간: 2020~2030
- 사업장소: 고서면 보존리 일원
- 사업내용: 주택단지 2,559세대(공동 2,178, 단독 381)
- 문의처: 도시과 공동주택팀 ☎ 380-3117

● 대덕매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4~2028
- 사업장소: 대덕면 매산리 544번지 일원
- 사업내용: 주택단지 500세대(공동 356, 단독 144)
- 문의처: 도시과 공동주택팀 ☎ 380-3117

● 전원마을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04~2020
- 사업내용: 주택단지 184세대
- > 수북 공산 (20), 창평 유천 (31), 금성 대성 (21), 창평 읍수 (52), 봉산 기곡 (30), 대덕 매산 (30)
- 문의처: 도시과 공동주택팀 ☎ 380-3117

● 공동주택 건설사업

- 사업내용 : 2,436세대
- > 지역주택조합 : 담양읍 1,979세대 (양각 246, 백동 224, 삼다 1,269, 남산 240) / 고서면 850세대 (동운 850)
- > 일반분양주택 : 담양읍 264세대 (백동 192, 지침 72) / 고서면 299세대 (동운 299) / 수북면 44세대 (대평 44)
- 문의처 : 도시과 공동주택팀 ☎ 380-3107

● 행복주택(임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사업기간 : 2020~2026
- 사업장소 : 담양읍 삼면리 일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근로자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94세대)
- 문의처 : 도시과 공동주택팀 ☎ 380-3107

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지원구분	지원사업	지원처	내용
전 국	전기요금경감	한국전력공사	- 월 전기요금의 30%할인 (16,000원 이내)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 (동절기) 월 6,000원 할인, (비동절기) 월 1,650원 할인
	자동차 취득세	관할 시군구	- 차량 1대 취득세 면제
	KTX, SRT	코레일한국공사	- 3명 이상 사용시 어른 30%, 13세 미만 50% 할인
	대학생 등록금	한국장학재단	- 기초·차상위가구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지원 - 3자녀 이상 가정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 2008.1월 이후 출생한 2째 이후 자녀들 둔 가정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 - 2자녀 : 12개월 - 3자녀 이상 : 1인당 18개월씩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국세청	- 2자녀 : 연 30만원 - 3자녀 이상 : 연 30만원 + 2명들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전라남도	- 주택구입시 대출이자 월 15만원 한도 지원 - 한국주택공사 등 지원대상 상환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15만원 한도
담양	다자녀가정 거저귀 지원	군 보건소	- 둘째이 이상 출생 가정(만 24개월까지 월 90,000원 지원)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	군 보건소	-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1년이상 담양 거주시) -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이상 50만원
	상하수도 요금감면	물순환사업소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월 10톤 감면 - 상수도 7,670원, 하수도 3,600원 (감면후 고지서 발송)

(※ 자료출처 : 담양군)

4. 담양군 인구소멸 SWAT 분석

S-강점 (Strength)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담양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전원주택 및 아파트 단지 조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잠재적 매력 요소가 되고있다.

● 문화적 자산

담양군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관광지, 역사문화 유산 및 인문학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담양의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가로수길, 메타프로방스, 소쇄원, 식영정과 같은 생태문화명소 및 역사문화 유적지는 관광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속적인 인구 정책

담양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W-약점 (Weakness)

● 청년층 감소

2023년 기준 담양군의 청년층 인구는 12,248명으로 전체 인구의 27%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 일자리 부족

담양군은 농촌형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의 산업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외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 초고령화 사회

담양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373명으로 전체인구의 33.9%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 부양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낮은 출생률

담양군의 하루 평균 출생률은 0.4명에 불과해 사망률(1.7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O-기회 (Opportunity)

● 관광·문화산업 발전

담양군은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자연, 풍부한 역사문화 및 인문학 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농촌자원을 접목한 6차융복합산업과 접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부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 주거환경 개선

담양군은 인근 광주광역시를 비롯 도시지역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외부 도시민들이 담양의 곳곳에 귀촌, 귀농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아주 좋은 편이다.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예: 담빛문화지구 680세대, 전원주택단지 772세대)와 전원택지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거 환경개선으로 외부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 정부 지원정책 활용

담양군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T-위협 (Threat)

● 인구유출 지속

담양군의 전입인구가 하루 평균 10명인 반면, 전출인구는 9.97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우려된다.

● 경제적 침체

담양군 인구는 소폭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노령인구 33.9%에서 보여주듯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내 소비감소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잠재적 공실률 증가

담양군은 신규 주택단지 조성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인구의 외부 유입 보다는 지역내 수평이동이 대부분이어서 아파트 공실률이 늘고, 아울러 전원택지 미분양률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특단의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 경쟁지역의 부상

곡성, 구례, 순창 등 인근 지역의 발전으로 인해 담양군의 상대적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담양을 선호하던 도시민들의 외부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약점-기회-위협'의 SWAT분석을 통해 담양군이 강점은 적극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울러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담양군 인구소멸 SWAT 분석

S

**강점
(Strength)**

-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
- 도시민이 선호하는 전원주택 및 아파트단지 조성에 유리한 조건
- 다양한 문화적·인문학적 자산과 유명 관광지 보유
- 지속적인 인구 정책과 사업 추진

W

**약점
(Weakness)**

- 청년층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 위축
-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 외부 유출 지속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 사망률 보다 낮은 출생률로 자연적 인구감소 추세

O

**기회
(Opportunity)**

- 관광·문화산업 발전의 기대치 상승
- 살기좋은 담양 지역브랜드 상승으로 외부 인구유입 촉진 가능
- 지방소멸,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적극 활용

T

**위협
(Threat)**

-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 감소로 지속적인 인구유출 우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가능성
- 농촌빈집 및 신규주택 공실률 증가 추세
- 인근지역 발전에 따른 담양군의 상대적 매력 감소 우려

03

담양군 농촌유학 여건 분석

제1절 농촌유학의 개요 및 정책

1. 농촌유학의 개요
2. 전라남도(교육청) 농촌유학 정책

제2절 담양군 농촌유학 여건 분석

1. 담양군 소멸위기 학교 현황
2. 담양군(교육청) 농촌유학 기본현황
3. 담양군(교육청)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
4. 담양 농촌유학 시행 학교
 - 금성면 【금성초등학교】
 - 용 면 【용면초등학교】
 - 대덕면 【만덕초등학교】
 - 봉산면 【봉산초등학교】
 - 월산면 【월산초등학교】
5. 담양 농촌유학 SWAT 분석





03 담양군 농촌유학 여건 분석

제1절 농촌유학의 개요 및 정책

1. 농촌유학의 개요

농촌유학은 도시의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유학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농촌유학은 학생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개요

농촌유학의 주요 목적은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은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며, 이를 통해 농촌공동체를 살리고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 대상

농촌유학은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의 동의 하에 참여할 수 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 기간은 다양하며, 단기(6개월)에서 장기(3년이상)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단기형은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생까지 대상이며 장기형은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생까지 대상이다.

• 형태

- 학교연계형: 농촌지역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해당 학교에 다니며 생활하는 형태이다. 학생들은 농촌학교의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방과 후에는 농촌 체험활동을 한다.

- 가정연계형: 농촌지역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생활하는 형태이다.

학생들은 농촌가정의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지역학교에 다니거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습을 이어간다.

- 캠프형: 방학기간 동안 농촌지역에서 캠프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효과

농촌유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며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학교와 가정에 학생들이 유입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상호 이해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다.

이처럼, 농촌유학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농촌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시행지역

농촌유학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첫 시행한 이래 현재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등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촌유학생 유치와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농촌지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촌유학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전라남도(교육청) 농촌유학 정책

(1) 전남, 전국최초 '농촌유학'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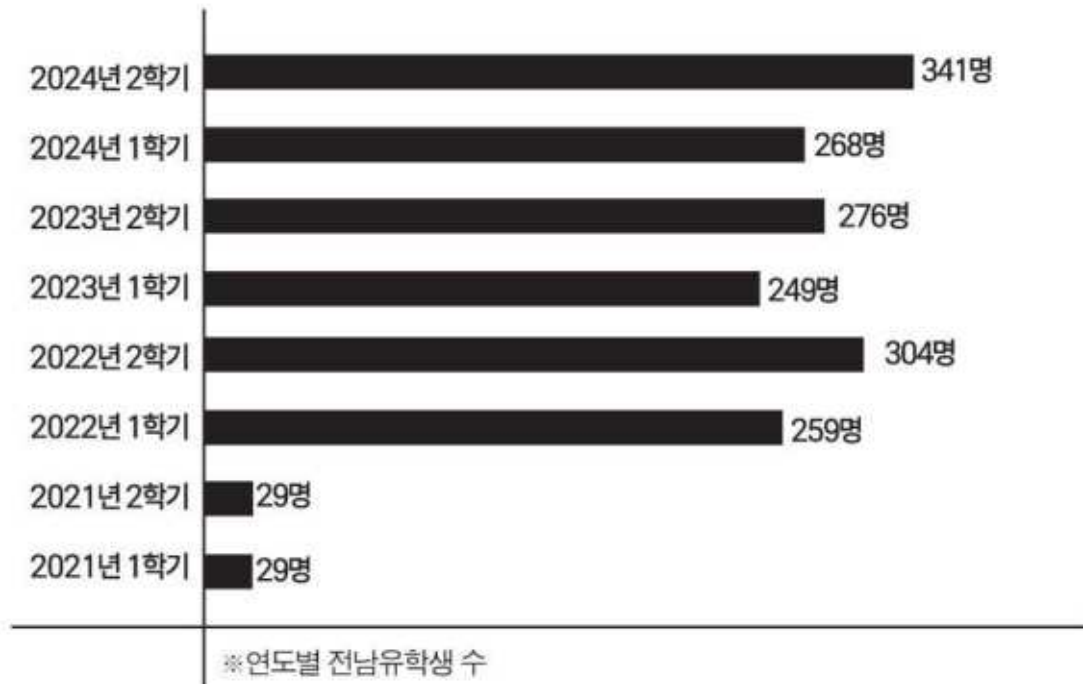
전라남도의 농촌유학은 전남 이외 지역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 와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시행중이며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 교육의 대안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하에 지난 2021년 3월 전국 최초로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학생수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전남의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취지와 더불어 코로나 시대 정상등교가 어려운 서울시 초·중학생들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 목적에 부합한 양 시도교육청의 공동 프로그램이었다.

전남도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은 관련 조례(2020년 10월 제정),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2020년 12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 4년차를 맞아 해마다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학 체류기간 연장률도 70%를 상회할 만큼 활성화 되고 있다.

(2) 전남 농촌유학 현황



전남도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 가고 있고 참여학교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학 연장률도 70%를 웃돌고 있는 등 유학생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다.

전남도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2023년 농촌유학생은 도내 16개 시군 48개교(초34개교, 중14개교)에서 총 256명(163가구)이며 초등학생 222명,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3명 등이다. 이중 연장자는 55명으로 파악됐다.

이어 2024년도 2학기에 담양군을 포함해 전남지역 농촌유학을 신청, 학업중인 농촌유학생은 총 341명(198가구)이다. 이중 296명(167가구)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연장했으며 45명(31가구)이 2학기에 신규 신청했다.

올해 2학기 전남도내 전체 농촌유학생 341명중 가족체류형이 대부분으로 총314명(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혼자 또는 가족일부가 함께하는 팜스테이형태의 농가·센터형 유학생은 27명(8%)이다.

2024년도 2학기 전남지역 농촌유학생 지역별 상황을 보면, 서울이 152명(45%)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71명(21%), 광주 38명(11%), 기타 80명(23%)이다. 기타지역은 경남 15명, 부산 15명, 인천 15명, 강원·경북·대구·대전·세종·울산·전주·제주·충남·충북·해외 등 전국 각지에서 유학온 학생 35명 등이다.

아울러, 전남도내 2학기 농촌유학 학교는 전체 63개교이며 이중 초등학교가 44개교(290명), 중·고등학교가 19개교(51명)이다. 농촌유학 기간별 상황을 보면 6개월 31명(9%), 1년~3년 182명(53%), 3년 이상 128명(38%)으로 집계됐다.

2024년도 2학기 전남유학생 시군별 현황

연번	시군별 학교수					학교급 및 학생수					유형별 학생수 및 가구수					
	시군	초	중	고	계	초		중/고		계	가족채류형		농가형	센터형	계	
						학교명	학생수	학교명	학생수		학생수	가구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가구수
1	순천	1	0	0	1	낙안초1	4		0	4	3	2	1		4	2
2	나주	1	1	0	2	왕곡초1	1	영산포여중1	1	2	2	1			2	1
3	담양	5	0	0	5	금성초8, 만덕초3, 봉산초2, 용면초9, 팔산초3	25		0	25	25	17			25	17
4	곡성	3	2	1	6	심기초2, 오산초19, 죽곡초2	23	곡성중1, 옥과중4, 곡성고1	6	29	29	19			29	19
5	구례	6	0	0	6	간문초2, 광의초19, 원촌초14, 중동초19, 청천초1, 토지초11	66		0	66	66	50			66	50
6	고흥	2	2	0	4	남양초4, 영남초1	5	고흥남양중1, 포두중1	2	7	7	4			7	4
7	보성	4	1	0	5	검백초4, 독광남초2, 문덕초10, 조성남초4	20	보성북내중1	1	21	21	13			21	13
8	화순	3	1	0	4	천태초11, 청풍초1, 화순이서분교8	20	화순동북중1	1	21	13	8		8	21	8
9	장흥	1	1	0	2	장평초10	10	장흥장평중3	3	13	13	9			13	9
10	강진	5	2	0	7	도암초3, 병영초1, 움천초7, 작천초8, 칠량초1	20	도암중1, 작천중3	4	24	17	9		7	24	9
11	해남	5	3	2	10	계곡초9, 마산초4, 복일초27, 삼산초1, 현산초13	54	두륜중13, 해남제일중2, 현상중2, 해남고2, 해남공고1	20	74	74	40			74	40
12	영암	3	1	0	4	구림초2, 금정초5, 도포초4	11	구림중3	3	14	14	8			14	8
13	함평	3	0	0	3	손불서초4, 엄다초5, 해보초3	12		0	12	12	7			12	7
14	장성	1	0	0	1	서삼초15	15		0	15	15	9			15	9
15	진도	1	1	1	3	금성초4	4	진도군내중8, 진도실업고2	10	14	3	2		11	14	2
계		44	15	4	63		290		51	341	314	198	1	26	341	198

(3) 전남, 농촌유학 활성화 주력

전남도교육청은 농촌지역 작은학교 살리기와 더불어 전남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매년 학기 단위로 전국단위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내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연수회, 학교장 연찬회,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관리와 함께 지역별 유학마을을 선정해 다양한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 지자체와도 협력해 농식품부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는 등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및 농산어촌 지역 작은학교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촌유학 운영 학교·농가·주택 발굴 외에 지자체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및 시설개보수,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 및 안전망 구축에 공동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촌유학센터를 통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4) 전남 농촌유학은 어떻게?

전남도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은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센터형(기숙형) 3가지다.

가족체류형은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학생과 함께 이주해 제공되는 주택에 생활하며 유학하는 형태이며, 홈스테이형은 학생이 학교 인근 농산어촌 주택(농가)에서 농가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형태이다. 또, 센터형(기숙형)은 지자체 등이 마련한 공동공간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며 유학하는 형태이다.

유학기간으로는 단기유학(가족체류형/농가홈스테이형)과 장기유학(가족체류형, 5년)으로 나뉘며 단기유학 가족체류형은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 대상이고 농가홈스테이형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대상이다.

장기유학(가족체류형)은 초등1학년~중3학년 및 고등학생(초,중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이 대상이며 최근들어 장기유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 농산어촌유학 평가 행사

(5) 전남 농촌유학 지원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의 농산어촌으로 유학 오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체류비로 최대 3년~5년간 유학경비를 지원해 준다.

유학경비는 가족체류형과 홈스테이형에 따라 약간 다르게 지원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남도교육청이 매월 가구당 또는 학생 1인당 30만원, 서울시교육청 30만원 등 매월 6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수급대상자는 교육급여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초기정착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농산어촌 유학생들에게 학생당 최초 1회 50만원을 지원해 준다.(단, 2023년 들어 서울시의회가 농촌유학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지원이 중단중이다)

■ 전남교육청 농촌유학 지원현황

* 전남교육청: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지원

구분		서울지역		서울이외 지역
		전남교육청*	서울교육청(최대1년)	전남교육청
월 체 재 비	가족 체류형	가구당 월 30만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명 30만원, 2명 40만원, 3명 50만원, 4명 60만원	가구당 월 30만원
	농 가 홈스테이형	학생당 월 30만원	학생당 월 30만원	학생당 월 30만원
교육급여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월 20만원 지원 ※ 가족체류형 가구당 월 20만원 농가형 학생당 월 20만원	해당없음
초기정착금		해당없음	학생당 1회 50만원	해당없음

제2절 담양군 농촌유학 여건 분석

1. 담양군 소멸위기 학교 현황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인해 담양군 관내에도 작은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학교 소멸 위기와 폐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담양군의 소멸위기 학교는 모두 10개교에 달하며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 등이다.

2023년 기준 소멸위기 학교별 현황을 살펴보면,

담주초교의 경우 학생수 41명, 봉산초교 56명, 월산초교 49명, 금성초교 44명, 무정초교 52명, 용면초교 29명, 만덕초교 33명, 남면초교 39명, 금성중학교 20명, 고서중학교 52명 등이다.

이중 만덕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23년 1학기에 전체 6학급에서 5학급으로 축소됐다가 학교 측에서 서울·광주권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 2024년 2학기에 2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해 다시 6학급으로 복원됐다.

담양군과 담양교육지원청은 농촌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멸위기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	
학 교	학생수	초등학교	학생수	학 교	학생수
담주초등학교	41명	무정초등학교	52명	금성중학교	20명
봉산초등학교	56명	용면초등학교	29명	고서중학교	52명
월산초등학교	49명	만덕초등학교	33명		
금성초등학교	44명	남면초등학교	39명		

2. 담양군(교육청) 농촌유학 기본현황

담양군(교육청)의 농촌유학 정책은 전남도교육청의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도농교류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중이며 담양교육지원청 또한 지역내 교육공동체와 함께 작은학교 살리기 및 찾아오는 담양교육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은 전남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을 와서 생활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으로 전남도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등 타지역 시도 교육청의 유학생 상호교류 협약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진행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농촌유학 단기유학생의 경우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장기유학생은 최대 5년간 유학경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가족체류형의 경우는 월 체재비로 가구당 월 30만원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담양군이 가구당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최소 월 60만원의 유학경비를 지원 받게 된다.

담양군과 담양교육지원청의 농촌유학 정책은 아직은 타시군 농촌유학 선도지역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그 대안의 하나로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온 도내 선도지역에 비해 그동안 담양군이 적극적으로 농촌유학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2023년 상반기 담양군의 농촌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금성초교·월산초교·만덕초교 등 3개 초등학교에 총 6명의 유학생이 1학기 중 가족체류형으로 담양에 유학 왔을뿐이다. 이전 2022년 2학기에도 봉산초교·금성초교·담양여중·고서중 등 4개 초·중학교에 6명만이 가족체류형 유학생을 했다. 이 외에 봉산초교가 2022년 2학기에 이어 2023 상반기에도 농촌유학생을 신청했으나 매칭된 인원이 없었으며 용면초교 또한 2023년 상반기 유학생을 받으려 했으나 매칭인원이 없었다.

그러나, 담양군의 농촌유학생은 2024년 들어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2024년에 용면초교 5동, 금성초교 3동 등 총 8동의 모듈러 주택을 건립, 2학기 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에 힘입어 올해 2학기에는 1학기 10명 보다 15명이 늘어 총 25명(17가구)이 담양에서 농촌유학 중이다.

학교별로는 금성초교 8명, 용면초교 9명, 봉산초교 2명, 월산초교 3명, 만덕초교 3명 등이며 지역별로는 서울(7명), 경기(11명), 인천(3명), 광주(4명) 등이다.



3. 담양군(교육청)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

담양의 농촌유학 정책은 전남도교육청의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도농교류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중이며 지역내 교육공동체와 함께 작은학교 살리기 및 찾아오는 담양교육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담양군의 농촌유학 형태는 농가형과 가족체류형 2가지 형태로 운영중이다.

농가형은 학생이 해당지역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생활하는 것으로 초등4학년~중등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체류형은 학생 및 가족 일부가 이주해 마을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이며 초등1학년~중등2학년생이 대상이다.

담양군의 농촌유학은 최초 2021년 3월에 첫 시작했으며 유학기간은 최소 6개월 또는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유학생이 희망하고 유학학교에서 동의할 시 유학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양군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023년부터 일정액을 배정해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에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주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생 가정을 위한 모듈러 주택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외에도 담양군은 담양장학회 기금으로 가족체류형 유학생 가족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농촌유학생 운영 학교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은 2023년 11월 「담양군 농촌유학지원조례」를 제정해 농촌유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 지원 가족 체류형 농촌유학 모듈러 주택

(1)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전남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와서 생활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으로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유학생 상호교류 협약에 따라 진행 중이다.

전남도내 담양군을 비롯 19개 시군 52개교(초등39개교, 중등13개교)에서 농촌유학을 시행중이며 농가형, 가족체류형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청죽골 농촌유학지구 모듈러 주택 제공

담양군은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의 작은학교 살리기 농촌유학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 일환으로 농촌유학생 모듈러 주택을 조성, 체류형 농촌유학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도시의 청장년층 세대를 담양으로 유입, 체류형 농촌유학 참여자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관계인구를 늘려나가는 한편 유학생 및 학부모의 농촌살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담양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담양군은 2024년에 농촌유학 거점지역으로 용면초등학교(5동), 금성초등학교 (3동) 등 2개교에 모듈러 주택을 조성해 체류형 농촌유학 가족에게 제공했으며 향후 10~15개로 늘려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가족 10세대(최소30명) 이상 유치할 방침이다.

(3) 유학경비 지원

담양군 농촌유학생에게는 유학경비도 지원된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전남 및 담양체류 유학생 가구당 매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서울체류 유학생은 학생1인~4인 기준 30만원~6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된다.

홈스테이형 유학생에게는 전남체류 유학생 월 30만원, 서울체류 유학생 30만원으로 동일하다. 2가지 유형 모두 유학생 체류비 지원금과는 별도로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초과체재비·생활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4) 담양장학회 기금 지원

담양군은 담양장학회 기금으로 담양으로 유학 온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생의 경우 가족 체류비로 전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체류비 외에 담양군 자체적으로 매월 3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유학생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에는 담양장학회 기금에서 '친구야 놀자' 등 농촌유학생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5) 작은학교 살리기 학교 지원

담양군은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일환으로 농촌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 작은학교 및 농촌유학생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난해 월산초교, 용면초교, 금성초교 등 3개교에 각 1억원씩을 지원했다. 올해는 만덕초교, 봉산초교, 고서초교 등 3개교에 7천만원씩을 지원했다.

또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올해 용면초교 5동, 금성초교 3동 등 총 8동의 모듈러 주택을 건립, 2학기 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에 힘입어 올해 2학기에는 1학기 10명 보다 15명이 늘어 총 25명(17가구)이 담양에서 농촌유학중이다.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11.07 조례 제28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담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및 관리운영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학교의 실정과 유학시설 수요의 적합성
2. 지역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
3. 농촌유학 시설 운영의 지속성
4. 군민(지역주민)의 인식 및 협조

제5조(농촌유학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과장,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담당과장, 주택업무 담당과장, 귀농귀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홍보) 군수는 농촌유학조직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11.7.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2023.11.7. 박은서 군의원

4. 담양 농촌유학 시행 학교

2024년도 담양군 관내 농촌유학을 시행하는 학교는 금성초교, 용면초교, 봉산초교, 만덕초교, 월산초교 등 5개교에 총 25명이다.

학교별 농촌유학생 현황은 금성초교 8명, 용면초교 9명, 봉산초교 2명, 만덕초교 3명, 월산초교 3명 등이며 이중 서울지역에서 온 유학생(4명), 경기(10명), 인천(3명), 광주(4명)으로 파악됐다.

학 교	학생수
금성초등학교	8명
용면초등학교	9명
만덕초등학교	3명
봉산초등학교	2명
월산초등학교	3명

▲ 2024년도 2학기 담양군 농촌유학 시행학교 현황

2024년도 1학기 담양 농촌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체류형 유학으로 8가구 10명의 학생이 6개월간 담양에서 농촌유학을 했다.

학교별로는 금성초교에 3가구 4명 학생을 비롯 봉산초교에 1가구 2명, 월산초교에 3가구 3명, 만덕초교에 1가구 1명 등 모두 8가구의 가족들과 10명의 학생이 담양에서 농촌유학 생활을 했다. 이중 월산초교 2가구 2명의 학생은 작년 2학기에 이어 올해 1학기도 계속 연장했다.

2024년 2학기에 유학생들은 첫 지원되는 유학생 가족전용 체류형 모듈러 주택이 있는 용면초교에 5가구, 금성초교에 3가구가 입주했다. 담양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이 담양교육청에 지원한 모듈러 주택은 2024년에 처음으로 8동을 건립했으며 용면초교 5동, 금성초교 3동이다.

(1) 금성초등학교

• 일반현황

금성초등학교는 1923년 9월 금성면 소재지에 금성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해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1947년 금성국민학교로 개칭했으며 1992년 광덕국민학교를 통합하고, 1993년 금성남국민학교를 통합했다. 1996년 금성초등학교로 개칭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금성초교는 2024년 1월 기준 99회 졸업생 3명을 포함해 총누계 6,43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교직원 25명, 학급수는 1학년~6학년까지 각 1학급 및 학습도움반, 유치원까지 8반을 운영하고 전체 학생수는 51명에 유치원생 4명 등 총 55명이다.

교육의 기본방향은 더불어 배우며 꿈을 키우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스스로 즐겁게 배우고 성장의 기쁨을 느끼는 어린이, 학교를 신뢰하고 자녀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학부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운영중이다.



▲금성초등학교

금성초교가 지향하는 교육중점은 ▲너·나 우리가 함께하는 어린이(인성역량-나눔,배려) ▲배움이 즐거운 어린이(지적역량-자율,협력)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사회적역량-심미적,자연친화적 감성)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사회적역량-자기관리) 교육목표 아래 다모임활동을 비롯 독서교육, 동아리활동, 도전활동, 생태교육 등을 중점교육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색교육으로는 평생독자를 기르는 인문학 글쓰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유학생 현황

- 2024년 2학기에 가족체류형 8명 배정
- 모듈러 주택 3동 신축, 3가구에 제공

금성초등학교는 올해 2학기에 8가구 10명이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5명, 경기지역 4명, 광주 1명 등이다. 그러나, 이중 3가구 8명만이 담양군이 제공한 모듈러 주택을 제공받아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을 진행중이다.

담양군은 금성초등학교 농촌유학생 유치를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가족체류형 모듈러 주택 3동을 건립하고 이들 가족체류형 유학생가족에게 제공했다. 2024년 하반기에 첫 지원한 가족체류형 모듈러 주택이 3동인 관계로 신청한 8가구 중 5가구는 관내 일반가정이나 농촌빈집 등을 활용한 농가 홈스테이 또는 금성초교 외 다른 학교를 선택해 농촌유학을 해야 했다.

한편, 금성초교는 2024년 1학기에는 도시학생 4명(3가구)이 금성초교에서 농촌유학을 했으며 2학기에도 연장 신청했다. 2023년에는 1학기에 3명, 2학기에 2명이 농촌유학을 하는 등 담양교육청이 농촌유학을 시행한 이후 꾸준히 농촌유학생을 받고 있다.

■ 금성초등학교 농촌유학 활동



▲가족체류형 모듈러 주택

(2) 용면초등학교

• 일반현황

용면초등학교는 1933년 3월에 개교한 공립학교로 9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2024년 1월 기준 87회 졸업생 4명을 포함해 총 5,6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교직원 수는 교사 12명 포함 24명, 학급수는 1학년~6학년까지 각 1학급을 운영하고 전체 학생수는 24명(남13명, 여11명)에 유치원생 5명 등 총 29명이다.

교육의 기본방향은 꿈을 키우며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공동체를 운영중이다.

용면초교가 지향하는 교육중점은 서로 존중하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 함께 탐구하며 슬기로움을 키우는 학생, 소질을 계발하여 꿈과 끼를 키워가는 학생, 좋은 습관을 지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교육목표



▲용면초등학교

아래 ▲바른인성 기르기 ▲생활속 작은나눔 실천하기 ▲기초·기본 학력 다지기 ▲자기주도적 학습하기 ▲소질과 적성 찾아 재능 키우기 ▲감성 중심의 문화예술 체험하기 ▲건강한 몸과 마음 기르기 ▲안전한 환경 가꾸기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색교육으로 ▲1인 1악기 연주 ▲방과후학교 ▲학교숲 관찰표현 ▲교육과정 발표회 ▲문화예술 체험활동 ▲자전거타기 도전활동 ▲뉴스포츠 활동 ▲제동행 건강걷기 ▲수영실기 체험학습 ▲스케이트 체험학습 외에도 용면교육가족 어울림 한미당 체육행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존감 향상 건강증진교실 운영, 학생 수련활동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예술 감성교육과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 유학생 현황

- 금년 2학기에 첫 농촌유학생 9명 배정
- 모듈러 주택 5동 신축, 5가구에 제공

용면초등학교는 2024년 2학기에 처음으로 농촌유학생을 배정 받았다.

금년 2학기에 용면초교에 농촌유학을 희망한 타지역 도시민들의 신청 및 전남도교육청의 가배정 현황을 보면, 8가구 14명의 학생이 가족체류형으로 용면초교를 희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6명, 경기지역 4명, 인천지역 4명 등이다.

하지만, 모듈러 주택이 5동인 관계로 가배정 8가구 중 3가구는 배정을 받지 못해 타지역 또는 타 학교로 농촌유학을 선택했다.

한편, 담양군은 용면초등학교 농촌유학생 유치를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가족체류형 모듈러 주택 5동을 지어 용면초교에 지원했다. ※ 사진(17)= 용면초등학교 농촌유학 활동(4컷-1p)

■ 용면초등학교 농촌유학 활동



▲가족체류형 모듈러 주택

(3) 만덕초등학교

• 일반현황

만덕초등학교는 1930년 6월 대덕면 소재지에 만덕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해 9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1938년 만덕공립심상소학교로 교명을 개칭했으며 1941년에 만덕공립국민학교, 1946년 만덕국민학교로 개칭했다. 1961년에 만덕국민학교 입석분교장 인가, 1968년 만덕국민학교 금곡분교장 인가, 1980년 만덕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인가, 1985년 만덕국민학교 금당분교장 인가 등을 거쳐 1991년에 금당분교장 입석 분교장을 본교에 통폐합했다. 1992년 3월 용산국민학교가 용산분교장으로 본교에 영입됐으며 9월에는 만덕국민학교 병설 용산분교장 유치원을 영입했다. 1993년 만덕국민학교 병설 용산분교장 유치원 폐원, 1995년 만덕국민학교 병설 용산분교장을 본교로 통폐합, 1996년 만덕초등학교로 교명을 개칭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덕초교는 2023년 제28대 임봉애 교장이 부임했으며, 2024년 1월 제91회 졸업으로 지금까지 누계 총 3,99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교직원수는 21명, 학급수는 1학년~6학년까지 각 1학급씩 6학급, 유치원 1학급을 운영하고 전체 학생수는 26명에 유치원생 6명 등 총 32명이다.



▲만덕초등학교 전경

교육의 기본방향은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만덕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만덕초의 꿈나무들이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운영중이다.

만덕초교가 지향하는 교육중점은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바른 어린이, 새롭게 생각하는 슬기로운 어린이,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기본 생활습관 형성 ▲배려와 봉사로 공동체의식 함양 ▲기초·기본 학력 정착 ▲활동중심 교실수업 개선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자기빛깔 찾기 교육실천 ▲교과융합 SW교육 및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안전,보건,위생 교육 충실 ▲영양교육의 내실화 및 식습관 지도 ▲기초체력 향상 지도, 심신건강 교육 등을 중점교육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색교육으로는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글로벌 3-점핑' 활동으로 미래의 리더 기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농촌유학생 적극 유치 등을 통한 작은학교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에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유학생 현황

- 금년 2학기에 농촌유학생 3명 전입
- 1학급 늘어 6학급에 전교생 26명
- '작은학교 살리기' 앞장서 실천 중

■ 만덕초등학교 농촌유학 활동



▲팜스테이형 농촌유학 주택

만덕초등학교는 올해 2학기에 3가구 3명이 농촌유학을 신청했다.

1학기에는 경기도 지역 학생 1명(1가구)이 만덕초교에서 농촌유학을 했으며 2학기에도 연장 신청했다.

2학기에 2명이 늘어난 것은 광주지역에서 2가구가 만덕초교로 농촌유학을 위해 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담양교육청 농촌유학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다 학교현장에서 농촌유학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자청, 올해 초에 만덕초교 교감으로 부임한 정경숙 교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덕초교의 경우 올해 1학기에 학생수 감소로 전체 6학급에서 5학급으로 1학급이 축소됐으나 정경숙 교감의 서울·광주권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2학기에 농촌유학생 및 전입생이 3명으로 늘어 다시 6학급으로 복원됐다.

한편, 만덕초교는 2023년에 11명이 졸업했으나 2024학년도에 입학생이 4명에 불과해 전교생이 총 31명에서 24명으로 줄어 지난 4월 1일자로 6학급에서 5학급으로 축소됐고 교사도 1명 전출됐었다. 그러나 2학기에 농촌유학생이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교생 26명으로 늘고, 아울러 학급도 다시 6학급으로 복원됐다. 향후 입학예정자는 2025학년도 5명, 2026학년도 5명 2027학년도 4명 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4) 봉산초등학교



▲봉산초등학교

• 일반현황

- 1931년 개교, 졸업생 6,184명 배출

봉산초등학교는 1931년 봉산공립보통학교(4년제)로 개교했으며 1940년 6년제로 승격, 학제를 개편했다. 9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1996년 봉산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 91회 졸업생(7명 졸업)까지 졸업생 총누계는 6,184명을 배출했다. 현재 교직원은 19명, 학급수는 1학년~6학년까지 각 1학급씩 외에 특수반 1학급, 유치원 1학급 등 총 8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수는 특수반 1명과 유치원 7명을 포함해 총 53명이다.

교육의 비전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바른 마음을 가꾸는 어린이(도덕인) ▲즐거운 배움으로 실력을 키우는 어린이(실력인) ▲꿈을 그리는 어린이(감성인) ▲건강하게 생활하는 어린이(건강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같은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중점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민주시민의식 기르기 ▲실력 기르기, 창의융합적 사고력 기르기 ▲미래를 위한 '나의꿈' 갖기, 예술적 감성 키우기 ▲몸을 튼튼하게 가꾸기, 안전한 생활 실천하기 등을 중점교육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 유학생 현황

- 관내 학교 중 2021년에 농촌유학 첫 시행
- 1학기 서울5명, 2학기 광주학생 1명 유학
- 2024년엔 1·2학기에 2명 연장유학 중

봉산초등학교는 담양관내 초등학교 중 가장 먼저 농촌유학을 시행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에 따라 2021년 1학기부터 전남농산어촌유학 정책을 시행하자 담양군에서는 첫 케이스로 봉산초교 농촌유학을 신청, 5명을 배정받았다.

이후 2학기에는 1명이 봉산초교에서 농촌유학을 했는데 1학기에 비해 4명이 감소한 것은 농촌유학생과 가족이 생활할 만한 주거문제의 어려움 때문이다. 당시에는 농촌유학 초기여서 주로 학교 인근 농가에서 학생과 부모중 한사람(주로 엄마)이 팜스테이 형태로 농촌유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탓이다.

이후 봉산초교는 2022년 1학기에 2명, 2학기에 4명으로 농촌유학생이 늘었고, 2023년 1학기에도 농촌유학생을 신청했으나 매칭된 인원이 없었다가 2학기에 다시 1명의 농촌유학생을 배정받았다. 금년에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2명의 학생이 기간을 연장해 유학중이다.

■ 봉산초등학교 농촌유학 활동



(5) 월산초등학교



▲월산초등학교

• 일반현황

- 1932년 개교, 졸업생 5,314명 배출

월산초등학교는 1932년 월산공립보통학교(4년제)로 개교했다가 1938년 월산공립심상학교로 학교명을 개칭하고 6년제로 승격했다. 1993년 월산동초등학교, 1995년 월산북국민학교를 통합했으며 1996년에 월산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9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2024년 1월 기준 제89회 졸업까지 총누계 졸업생 수는 5,314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교직원 23명, 학급수는 1학년~6학년까지 각 1학급 및 학습도움반, 유치원까지 8반을 운영하고 전체 학생수는 유치원생 10명을 포함해 총 51명이다.

교육의 비전은 기초·기본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더불어 생활하는 바른 어린이 ▲기본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어린이 ▲즐거며 재능을 키우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이같은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중점으로 ▲존중과 배려의 기본품성 기르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생활태도 지니기 ▲기초·기본학력 다지기, 자기주도적 학습력 기르기 ▲문화예술 감성교육으로 오감키우기, 즐기며 꿈과 끼를 가꾸기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 놀이와 도전으로 튼튼하기 등을 중점교육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 월산초등학교 농촌유학 활동



• 유학생 현황

- 2023년 첫 시작, 1학기 2명 2학기 3명 유학
- 금년에도 1학기 이어 2학기에 3명 유학 중

월산초등학교는 2023년 1학기부터 농촌유학생 신청 및 배정을 받았다.

농촌유학 시행 첫 해인 2023년 1학기에 1학년생(경기도 용인)과 2학년생(서울) 각1명씩 2명, 2학기에 3명이 월산초교에서 유학생활동을 했으며 2023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금년에도 1학기 3명, 2학기 3명이 유학중이다. 이들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월산초교에서의 농촌유학을 연장하고 팜스테이 형태의 가족체류형으로 농촌유학 중이다.

금년에 담양군이 금성초교(3동)와 용면초교(5동)에 지원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모듈러 주택이 내년에는 월산초교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5. 담양 농촌유학 SWAT 분석

S-강점 (Strength)

■ 지리적·환경적 여건

담양군은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통·문화·의료 등 농촌유학시 생활의 불편함이 없을 뿐더러 대도시 근교농업이 발달해 농촌지역 생활환경도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담양은 가시문화유적 등 역사문화 유산이 풍부하고 죽녹원, 메타가로수길, 관방제림 등 생태자연환경이 수려해 전국적인 여행 및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으며 여행자·관광객 등 관계인구가 많아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의 농촌유학 여건을 갖추고 있다.

■ 재정적 지원

담양군과 전남도교육청이 각 30만원씩 담양의 농촌유학생 가정에 월 60만원의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유학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 다양한 유학형태

농가형과 가족체류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 학생과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가족체류형으로 담양에서 유학하는데 있어서 유학생 가족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 지역 활성화 기여

농촌유학을 통해 담양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와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 모듈러 주택 제공

담양군이 가족체류형 유학생을 위한 모듈러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W-약점 (Weakness)

■ 초기단계의 정책

담양군은 다른 선도지역에 비해 농촌유학 정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로 유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교육 인프라 부족

농촌지역의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도시보다 부족해, 유학생과 가족의 생활에 불편하거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활성화 되어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홍보 부족

담양군의 농촌유학 정책과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잠재적인 유학생과 가족에게 담양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장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 농촌유학의 지속성 한계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정기간이 정해진 농촌유학 프로그램상 지속성과 정주여건의 한계로 인해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공동체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O-기회 (Opportunity)

■ 생태·환경교육 강화

생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도시 학생들에게 담양군이 매력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담양으로 농촌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

■ 도시지역과의 협력강화

서울시교육청, 전남교육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도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는 도시지역과 담양군의 교육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T-위협 (Threat)

■ 지속적인 인구감소

담양군 관내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농촌유학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 경쟁지역의 존재

담양군 외에 곡성,구례,순창 등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중이어서 학생 유치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담양군의 유학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책 지속가능성

담양군의 자체적인 재정 지원과 농촌유학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담양 농촌유학 SWAT 분석

S

강점
(Strength)

- 생태문화도시 담양군의 우수한 지리적·환경적 여건
- 담양군의 농촌유학생 체류비 등 재정적 지원
- 모듈러 주택을 제공 등 안정적인 유학생할 환경
- 농가형과 가족체류형 다양한 형태의 농촌유학 가능
- 농촌유학 선호지역,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 활성화 가능

W

약점
(Weakness)

- 선도지역에 비해 농촌유학 정책 활성화 미흡
- 농촌지역의 제한된 교육 및 생활 인프라 부족
- 유학생과 가족의 농촌생활 불편함
- 체류형 유학생 가족의 주거 및 일자리 부족
- 장기적 관점의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인구증가 한계

O

기회
(Opportunity)

-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으로 농촌유학 활성화 가능
- 농촌유학 선호지역, 유학생 유치 도시지역 협력 가능
- 담양의 생태자연환경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T

위협
(Threat)

-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유학 효과 제한
- 인근 지역의 농촌유학 유치경쟁 심화 추세
- 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농촌유학 정책의 지속 가능성



04

국내 인구소멸 대응 농촌유학 선진지 현장활동

제1절 농촌유학 성공사례 현장활동

1.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초등학교】
2. 전남 곡성군 오산면 【도담마을】
3.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
4. 충북 괴산군 청안면【제비마을 부흥권역】
5. 기타 성공사례 지역
 - 해남군 북일면 【북일초등학교】
 - 기타 수범 사례 학교

제2절 농촌유학 연계 인구소멸 대응 수범사례 현장활동

1. 전남 곡성군 오곡면 【스테이션 1928】
2. 담양군 대전면 대안학교【잇다자유발도르프】





04 국내 인구소멸 대응 농촌유학 선진지 현장활동

제1절 농촌유학 성공사례 현장활동

1.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초등학교】

일반현황

- 위치 :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봉동리) 616
- 개교 : 1930년 화면공립보통학교로 개교
1996년 오산초등학교로 개칭
1998년 성산분교 통합
2024년 제90회 졸업(총 3,730명)
- 학생수 : 33명, 특수반 3명, 유치원 4명
- 농촌유학생 : 2024년(가족체류형 15가구 학생 21명)



▲오산초등학교 전경

오산초등학교는 곡성군이 추진중인 '곡성유학' 중심학교로, 과거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극적인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에 성공한 학교이다.

곡성군은 현재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곡성유학' 정책을 통해 관내 농촌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및 농촌유학생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농촌유학 정책에 따라 2022년에는 도시학생 24명(13가구)이 가족체류형으로 곡성에 유학왔다. 삼기초교 3명(3가구), 죽곡초교 5명(1가구), 오산초교 16명(13가구), 곡성중 1명(1가구) 등이며 농촌유학생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학교 중 오산초등학교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곡성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한 2021년 이후 오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4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업 형태도 1~2학년이 함께 듣는 복식수업에서 벗어나 학년별 수업으로 정상화됐다.

오산초등학교는 농촌유학생을 유치한 첫해인 2021년 10명, 2022년 16명, 2023년 17명에서 2024년에 21명으로 늘어나 전교생(33명) 중 원주민 학생 보다 농촌유학생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날 정도로 오산초교에 대한 도시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한편, 곡성군은 오산초등학교 농촌유학 가족을 위해 오산면에 <도담도담 유학마을>을 조성하고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생을 입주시켰다. 입주민들은 삭막한 도시 생활을 떠나 오산면의 농촌에 모여 서로 낯선 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오산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삶을 함께하고 있다.

곡성군이 오산면에 조성한 '도담도담 유학마을'은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18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이다. 2024년 <도담도담 유학마을>에는 15동의 거주공간에 41명이 전입하면서 도담도담 유학마을은 총 18가구 입주를 마무리, 48명의 입주민이 생활중이다.



▲오산초등학교 꿈놀자학교 프로그램



▲곡성군립청소년관학약단 학생 연주회



▲오산초교 현장활동

현장활동 / 간담회

• 책임연구원

아이들 교육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산초교 교장

이렇게 저희 오산초등학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산초등학교 농촌유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농촌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5학급 규모로 전교생이

20명이 채 안돼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농산어촌유학을 2021년도 1학기부터 시작해서 그해에 10명을 받았는데, 그때는 유학생을 위한 거주 주택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오지 커뮤니티에 아이들의 임시거처를 이용했고, 2학기부터는 이제 곡성군이 농촌유학마을로 조성한 도담마을에 가족체류형 주택을 제공했죠, 도담마을은 처음에는 15평짜리 3동을 지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2021년 첫 시작한 저희 오산초교 농촌유학생은 그해에



▲현장활동 - 간담회



▲박은서 대표의원



▲장명영 의원



▲박준엽 의원



▲오산초교 교장

10명, 2022년도에 16명, 2023년에 17명, 그리고 올해는 21명의 농촌유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 책임연구원

그러면, 농촌유학생을 위한 도담마을 주택은 최초에 3동이었는데 그 뒤로 더 지어졌는지요?

• 오산초교 교장

곡성군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담마을을 농촌유학마을로 지정하고 연차사업으로 3차에 걸쳐 가족체류를 위한 주택을 더 지어 지금은 모두 15동이 있고 18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 박은서 대표의원

15동에 18가구가 생활하고 있다면, 주택의 평수가 넓은 것도 있나보죠?

• 오산초교 교장

주택 평수가 15평부터 20평까지 있어요. 1차에 지은 주택은 15평, 그다음에 18평,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은 3차 주택은 20평,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은서 대표의원

학교에서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하나요?

• 오산초교 교장

저희 학교에서 11월 정도에 농촌유학 설명회도 하고 또 캠프를 직접 열기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왔던 유학생들이 대부분 3년, 1년 반, 2년 살고 거의 본교로 돌아갔어요. 일부는 도담마을에서 살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 박준엽 의원

일부 학생은 곡성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다는 거죠?

• 오산초교 교장

네, 옥과중학교에 진학했죠. 그리고 또 학부모님 한 분은 아빠가 딸 둘 데리고 와서 2년 살고 아이들은 올라가고 아빠는 남아서 현재 창업하셔서 곡성군에 정착한 분도 있습니다.

• 박은서 대표의원

오산초교에 농촌유학은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오나요?

• 오산초교 교장

현재는 서울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MOU 체결해서 금년 8월말까지는 지원금이 있어요. 유학생 한명당 월 30만원씩, 2명이 되면 더 지원받죠.

• 박은서 대표의원

서울시에서 올해 농촌유학생 지원을 지금 폐지한다고 하는데 영향은 없는지요?

• 오산초교 교장

한시적으로 8월 말까지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말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광주지역 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유학 왔어요.

• 장명영 의원

광주에서 온 학생들도 지원을 받으니까? 똑같이.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똑같이 봤죠.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가족체류형 정착금을 받고 있죠. 도교육청에서 단기로 오는 학생들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주고요, 장기로 오는 학생들은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명영 의원

그 지원은 곡성군에서 별도로 해주는 건가요?

• 오산초교 교장

아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장명영 의원

전남도육청 외에 곡성군에서 지원하는 건 따로 없나요?

• 오산초교 교장

곡성군이 지원하는 주택은 임대료를 월 25만원에서 평수에 따라서 30만원까지 한 2~3만원까지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준엽 의원

곡성군 관내 3개 학교가 농촌유학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오산초교에 유학생이 많고, 또 전남권 중에서도 1개 학교로 치자면 여기가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곡성군 차원에서 이게 좀 뭔가 지원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뭔가를 시도 했는지?

• 오산초교 교장

우리 곡성 관내에는 초등학교 8개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면마다 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달리 우리 곡성군에서는 작은 학교를 통합하고 농촌유학 학교를 집중육성 했어요. 그리고 곡성군에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곡성미래교육재단인데,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사이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단체죠. 곡성미래교육재단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곡성군과 미래교육재단이 행안부 공모사업을 따와서 도담마을, 농촌유학마을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주거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등이 문제인데, 다행히 우리 학교 가까운 곳에 과학대학이 있어 거기에서 평생교육도 수강하고 자격증 따서 재취업하는 분도 있고

곡성기차마을도 있고 해서 훨씬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 장명영 의원

곡성으로 아이들 농촌유학 오신 분들이 또 지인들 소개해서 관광도 많이 오고하는 거죠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또 오신 학부모님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셨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학교에 유치원4명 포함해서 농촌유학생이 15가구 25명이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 박준엽 의원

그 15가구 25명 중에 모두가 장기적으로 도담마을에 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오산초교 교장

1년 계약으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1년 살아보고 이분들이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 책임연구원

1학기 농촌유학 학생들이 2학기도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거죠. 2학기에 또 새로 신규 신청자가 있습니까?

• 오산초교 교장

저희들은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이 이제 없어서 2학기에 신규는 안 받았어요.

• 장명영 의원

농촌유학이 활성화 되고있는 오산초교 학교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오산초교 교장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행사나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해보고 반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미리 준비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죠.

• 박준엽 의원

농촌유학마을 이름이 따로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거리



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등하교 하나요?

• 오산초교 교장

'도담마을' 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5분 거리인데 학교에서 도담마을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해요

• 박은서 대표의원

아이들이 도담마을에 이렇게 모여 살아야 또 유대감이 더 좋고 좋긴 할 것 같아요.

• 오산초교 교장

장단점이 있어요. 모여 사니까 같은 또래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도담마을 유학생들이 아닌 원주민 학생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원주민 아이들은 12명에 불과하고 결손가정도 있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유학생은 25명이나 되니 숫자에서 역전되고, 또 도담마을은 새로 지어 거주 환경이 아주 좋은데 반해 원주민 아이들은 살던 집에서 학교에 다녀야 하니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담마을 학부모들은 뚝뚝 뭉쳐서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행사도 함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주민 학부모들은 생업이 그래서 못 오신 그런 아쉬움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생각처럼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그렇죠.

근데 다행히 도담마을에서 원주민 아이들도 초청해서 게임도 하고 떡볶이 파티도 하는 등 더불어 함께하고 있

기도 해요.

• 장명영 의원

학교 행사는 도담마을 학부모들이 거의 참여하시겠네요?

• 책임연구원

도담마을 학부모들은 현지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는지요?

• 오산초교 교장

유학생 어머니들 중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3명 정도 지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주로 엄마들인데 아버지도 한 분 재택근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도담마을 거주하고 계신 집을 공개하신다는 분이시죠.

• 박은서 대표의원

중학교를 진학하면 여기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담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인지?

• 오산초교 교장

여기 오산초등학교 출신이면 살 수 있죠.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지낼 수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졸업한 아이들이 지금 둘이 있는데, 한 학생하고 그 친구가 또 와서 같이 살고 있고요. 중학교 다니고 있어 국가 중학교 그래서 4명이 지금 서울 아이들이고.

• 장명영 의원

농촌유학 캠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오산초교 교장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도 있었고 곡성군

에서 또 주관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작년 3월에 이 학교에 부임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군청의 도움을 받았어요.

군에서 버스 2대 2대를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안내하는 거 현장에서 버스 KTX 타고 와서 곡성역에서부터 학교까지 안내는 군청에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하고, 미래교육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처음에는 10가족만 하려고 했는데 희망자가 많아서 18가족, 서울에서 직접 내려오시게 해서 행사를 가졌는데 기념품과 선물 이런 것은 군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죠.

그런 부분과 차량, 그리고 학교설명회 끝나고 곡성기차 마을에 가서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 으로 진행하고 저녁 7시에 보내는데 까지 군청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 박은서 의원

근데 이제 또 다른 숙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제 농촌유학에 대한 조례를 폐지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될텐데 대비하는 그런 게 있나요?

• 오산초교 교장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고민은 뭐냐면 기존 오산초교에 있던 아이들이 빠져나가기도 해서 걱정이죠. 서울 아이들한테 치여서 빠져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더 학생 수가 많은 곳을 보내고 싶어서 옥과로 빠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품는,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는가 그게 고민이죠.

• 박은서 의원

그것도 이렇게 농촌유학생을 받는 것 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 오산초교 교장

맞아요. 유학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기존 오산초교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리 예산 가지고 저 애들에게 그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유

학생 때문에 우리 오산초등학교 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 우리 학교가 '다큐 인사이드' TV방송나간 거 1시간짜리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어요.

• 책임연구원

학생회장 선거를 유학생 애들이 뭉쳐버리니까 토종 학생이 져버린 건데, 그래서 울고 그랬던 것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 오산초교 교장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만나겠어요 서울 아이들.. 그리고 서울 아이들이 와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걸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죠.

• 박준엽 의원

프로그램 운영은 같이 하는거죠. 유학생들이나 기존 학생들 모두...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같이하죠

• 장명영 의원

이 교육 자체는 똑같이 이제 한 명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400만 원 갖고 전체 같이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여기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아이들이 친구가 없이 혼자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애들이 오니까,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활동하기도 수업 활동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들어오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비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누릴 수가 있죠.

• 장명영 의원

그런 게 장점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사실 농촌유학이 조금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 박준엽 의원

그리고 지금 오산초교 같은 경우 전남권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에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아요. 유학생이 이렇게 많은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존 학생, 학부모들과 어떻게 잘 화합해 운영하시는지?

• 오산초교 교장

올해 유학생을 많이 받았어요. 15가족 25명을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지킬 것인가 품을 것인가 하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동회 때도 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오시라고 하는데, 학부모 아니어도 초청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이장님들이 가서 설득하고 선물공세도 퍼보기도 하고 그랬죠. 유학생들이 전교생의 3분의 2가 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좀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죠.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어 현지 원주민들의 자녀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유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학교가 구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 장명영 의원

다문화 가족이 좀 교육 성취도가 좀 낮을 수 있는데 이 학교에도 있는가요?

• 오산초교 교장

우리 학교에 3명 있어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도움반에서 수업하죠. 그런 아이들이 다니기는 작은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거의 맨투맨으로 교육하니까요.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하니까.

• 책임연구원

거의 과외 수준이라고 해야죠.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는 장점이지요.

• 박준엽 의원

그런데 여기도 기존 토박이 원주민 아이들이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이곳도 출생률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출생아들도 나가는 추세라.

더군다나 마을에 보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죠. 우리 학교에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 1학기 동안에 한글 배우시는 문예교실 할머니들 한번 학교로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하루 지내보게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좋아하시지만 우리 아이들도 엄청 좋아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르신들을 학교에 다시 입학시켜야 될 상황이지요.

• 박준엽 의원

학생수에 따른 학년과 학급, 그리고 교직원 변동은 어떻게 되나요?

• 오산초교 교장

학생수와 학급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교직원도 감원되죠. 전체 6학급이 4학급으로 줄게되면 하면 교감선생님이 감원되고, 영양사가 없어지고 뭐 그렇죠. 우리 학교도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제 유학생을 받아 다시 충원됐죠.

• 박준엽 의원

이게 담양군도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대덕면 만덕초교가 상당히 위험했는데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2명이 다행히 고맙게도 광주에서 와줘서 살아나기도 했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디나 다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은 학교유지 차원에서는 대책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 장명영 의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재지나 읍지역의 학교는 학생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나 어떤 혜택을 주고 데려오는 방법도 좀 있을 듯 한데요.

• 오산초교 교장

그래서 공동학구제 라는 것이 있어요. 읍에 있는 아이들

이 작은학교를 이렇게 올 수 있고, 그 애들이 또 에듀터시를 통해서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죠. 저희 학교도 지금 12학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 중에서 우리 오산초등학교 올 수 있는 아이들은 데려오고 있어요. 농촌지역 학교는 대부분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 장명영 의원

오히려 학교유지 차원에서는 그 방법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준엽 의원

공동학구제는 담양도 하고 있어요. 담양남초교와 담양동초교, 무정초교 등인데 1179부대 학구는 원래 남초

교인데 학부모 선택에 따라 무정초교로 갈 수 있죠. 학생수가 많은 학교보다 작은 학교들의 지원이 더 많아서 학부모들이 공동학구제를 선택하는 사례도 좀 있어요. 수학여행도 해외로 가면서 무상으로 갈 수 있는 반면 큰 학교는 자부담도 내야 되고...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작은 학교는 대부분 시설도 좋고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 아이가 좀 개별적인 그런 교육이나 이게 필요하고 아이가 또 적응이 좀 힘든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오는 경우가 많죠.

(※오산초교 간담회 및 현장활동 후 인근 농촌유학마을【도담마을】로 이동)



2. 전남 곡성군 오산면 【도담마을】



▲도담마을 전경

일반현황

- 위치 :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 433번지
- 부지 : 7,138㎡(2,162평)
- 조성 : 2021년 단층 3동 건립
2022년 단층 7동, 2층 1동 건립
2023년 단층 2동, 2층 2동 건립
- 거주세대 : 18가구 48명
- 농촌유학생 : 2024년도 기준 21명

곡성군은 1990년대만 해도 인구가 5만명에 달해 여느 지역 못지않게 활기찬 도시였다. 늦은 시간까지 읍내 시가지는 환한 불빛을 밝혔고, 장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들곤 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곡성군의 인구수는 2만6천명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1만5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39.4%를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출산율은 0.5로 곡성에서는 웅기종기 모여 학교가는 아이들의 등굣길 풍경은 낯선 모습이 된 지 오래다.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곡성군은 교육을 통해 위기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바로 <곡성교육>이다.

곡성군은 2020년에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을 출범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 마을 어디든 배움터가 되고 지역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곡성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곡성만의 차별화된 농촌유학 프로그램

램 '곡성유학'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공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곡성유학'은 도시 학생들을 농촌으로 유치해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족 체류형 농촌유학 사업이다.

곡성군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협업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옥과권역(오산면) 등 3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곡성유학'은 최소 6개월 이상 과정으로 유학생과 유학학교 재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곡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학기에 곡성군으로 유학온 학생수는 35명으로 그중 오산초교가 25명을 차지하고 있다.

곡성형 농촌유학 교육인 '곡성유학'은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위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단지인 **【도담도담 유학마을】**을 조성했다. 또한,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곡성교육지원청과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유학생과 학부모의 적응을 돕기 위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숲 교육'은 학년별로 대상을 달리해 운영하고 있다. 도깨비마을 숲체험, 밭줄놀이터, 꿈놀자 트리클라이밍, 숲에서 길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매년 유학생 가족과 재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두근두근 곡성 곳곳' 유학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다. 은어 맨손잡이, 하우스 물놀이, 사과 고추장만들기 등 농촌살이를 경험하고 상호 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 마을과 학교를 살리는 -
곡성유학(가족체류형 농촌유학) 현황

□ **오산권역 곡성유학 현황**

- 위 치: 오산면 단사리 433번지
- 부 지: 대지 7,136㎡(2,162평)
- 건축현황: 경량목구조의 모듈러주택 15동/18실
 - 1차(3동/3실): 2021. 8월 완공(단층 3동)
 - 2차(8동/9실): 2022. 6월 완공(단층 7동, 2층 1동)
 - 3차(4동/6실): 2023. 11월 완공(단층 2동, 2층 2동)
- ※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커뮤니티실, 놀이방, 독서실, 세탁실
- 향후 추진계획
 -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 추진: 2023. 12. - 2024. 3.

□ **조감도**



▲도담도담 유학마을 현황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초기에 곡성유학을 다녀온 참여 부모들의 경험담이 각종 커뮤니티에 입소문이 나면서 곡성군에는 '곡성유학'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도담도담 유학마을】은 오산면 단사리 433번지 일원 7,136㎡(약2,162평)에 조성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마을이며 곡성군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층과 2층 건물로 모두 15동을 건립했다.

도담도담 유학마을은 현재 18가구 48명이 입주해 있으며 농촌유학생 21명의 도시학생들이 일정 기간동안 머물면서 오산초교 등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유학마을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지역 사회와

의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도담도담 유학마을】성공을 발판삼아 '곡성유학'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고 있다.

죽곡면 옛 폐교를 매입해 16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유학마을을 조성했고 삼기면에는 워케이션을 병행한 4가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추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 '곡성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단지를 1개 권역에서 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석곡권역 등 권역별로 총 18동의 참여자 거주시설을 추가로 조성 예정이다.

학생들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곡성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활동 / 간담회



▲도담마을 현장활동



▲박은서 대표의원



▲장명영 의원



▲박준엽 의원



▲도담마을 입주민

• 도담마을 입주민(오산초교 농촌유학생 학부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사는 여기는 농촌유학마을 조성할 때, 맨 처음에 지어진 집 3집 중에 첫 번째 집입니다.

• 책임연구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선진사례 연구차 담양 군의회 연구단체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방문했는데 몇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곳 도담마을에서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신지요?

• 도담마을 입주민

아이와 함께 오산초교에 농촌유학 하러 여기에 들어온 지 이제 5개월 쯤 됐죠.

• 박은서 대표의원

밖에서 보는 것 보다 집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방도 3개나 되고.

• 오산초교 교장

여기 식탁이랑 이런 것들도 다 기본 옵션들이예요. 냉장 고랑 세탁기 이런 거 다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어요.

• 장명영 의원

모두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오산초교 교장

주택안에 있는 것은 거의 모두 에어컨이랑, 책상까지 원룸처럼 갖추고 농촌유학 가족에게 제공하는 거죠.

• 박준엽 의원

이곳에서 생활해보니 어떤신가요?

• 도담마을 입주민

이곳이 마을을 이루고 있으니 학교 끝나고 오면 애들이 같이 있으니 저녁까지 애들은 너무 좋고, 저희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여기 내려오면 처음엔 좀 낯 설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사니까 서로 문제 있으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하니가 좋아요. 만약에 마을에 혼자만 있을 것 같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외롭기도 외롭고 문제 같은 거 생기면 어디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히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사니까, 그리고 또래들이 있으니 너무 좋아요. 서울 오가기도 편하고 그래요.

• 박은서 대표의원

여기 편의시설은 괜찮으신지? 뭐 슈퍼나 마트 등 생활용품 구입할 때 불편함은 없는지요?

• 도담마을 입주민

바로 근처에 마트가 있고, 학교 앞에도 있어 불편함 것은 없죠.

• 장명영 의원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 도담마을 입주민

멀지않은 곳에 과학대학이 있어서 평생교육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의 문화행사 이런데 많이들 이

■도담마을 현장활동



용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 책임연구원

어디서 살다가 이곳으로 아이들 농촌유학 하러 오셨는지?

• 도담마을 입주민

서울 본교에서 이 학교(오산초교)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오게 됐죠. 1학년만 14학급이 있는 서울의 큰 학교 보다는 여기는 학교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 게 많고 그래서 선택했죠.

• 오산초교 교장

어떤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농촌유학 안내 홍보물을 전달해 주기도 해요. 우리 학교는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하고 교류도 했어요.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공동수업도 했고 또 서울 아이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그랬죠.

• 박은서 대표의원

저희 담양에서도 이제 모듈러 주택을 지어 학교에 제공

하면서 농촌유학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여기 도담마을도 그런 케이스로 조성된 것이죠?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아까 제가 학교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곡성군에서 3차에 걸쳐 총 15동을 지어서 지금 18가구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체류형으로 저희 오산초교에 농촌유학 중이죠.

• 박준엽 의원

도담마을 농촌유학마을이 아닌 토박이 원주민 아이들과 여기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 도담마을 입주민

처음엔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못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도담마을 아이들끼리 잘 어울리고 놀아 괜찮았고 또, 원주민 아이들과도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서도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습니다.

• 박은서 대표의원

원주민 아이들 보다 이주민 유학생이 더 많아져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 오산초교 교장

초창기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도 됐고 사례지역 학교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담양에 농촌유학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우리 학교에 파견으로 모셔 와서 지금까지 4년 가량 유학 업무를 도와주고 있어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 박은서 대표의원

담양의 학교에서 이쪽으로 파견 나오신 거예요?

• 오산초교 교장

그렇죠. 담양 한재초등학교인데 우리 학교에서 초빙해서 4년 계셨으니 내년에 다시 담양으로 가실 수 있어요. 내년에 담양으로 모셔가도 되겠네요.

• 박은서 대표의원

그 선생님 성함은요?

• 오산초교 교장

박지영 선생님 이죠. 지금 연수 가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그분이 농촌유학 업무에 있어서는 거의 박사님이세요. 업무추진을 엄청 잘 하시는 분이죠.

• 장명영 의원

도담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 거주하는 공간이 다소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고 개

선은 됐는지요?

• 도담마을 입주민

사람이 사는 집이라 살면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지은 집은 조금 좁고 노후화되어서 개보수가 필요했는데 곡성군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지금은 불편함이 없어요.

• 오산초교 교장

도담마을 주민들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여기에 나오신 담당 주무관님이 파악해서 잘 해결해 주시고 있죠. 유학마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고 있어요.

• 박준엽 의원

원주민 마을은 어디에 있나요?

• 곡성군청 담당주무관

도담마을 건너편에 있는데 10가구 정도 살고 계시죠. 농촌마을이 다 그렇듯이 거기 마을도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여기에 한 다섯 여섯 가구, 또 저기에 세 가구,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 박준엽 의원

원주민마을과 유학마을 주민들은 서로 잘 지내시는지?

• 도담마을 입주민

원주민 마을 이장님께서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도 가끔 갖다 주시고 퇴비도 좀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텃밭도 가꾸고 그렇습니다. 도담마을 문화행사에 원주민들도 초청해서 함께 하는 시간도 자주 갖고 그러죠.

3.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일반현황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질마로 1456
- 개교 : 1943년 백봉초등학교 개교
1955년 학교이전(백봉리→부흥리 428번지)
1996년 백봉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1999년 장암분교장 통폐합
2024년 제76회 졸업(총 3,482명)
- 학생수 : 46명, 유치원 10명 등 총 56명
- 농촌유학생 : 2024년(가족체류형 14가구 학생 30명)

- 전교생 16명에서 56명으로 늘어 폐교 위기 벗어나

- 마을엔 체류형가족 속속 입주, 지역사회 '활력'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6명까지 줄었다가 지역주민들이 농촌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면서 2024년 현재 56명까지 늘어 폐교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백봉초교는 일명 제비마을로 알려진 청안면 부흥리에 있으며 제비마을은 마을 곳곳에 제비가 둥지를 틀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는데다 겨울에도 떠나지 않고 마을내 집집마다 제비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지만, 현재는 외지인이 이 마을에 한번 둥지를 틀고 나면 웬만해선 다시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8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백봉초등학교는 몇 년 전만 해도 유치원생을 포함해 전교생이 16명까지 학생이 줄어 폐교 대상이었으나, 마을주민들이 합심해 학교 살리기에 나서면서 2023년에 전교생 59명으로 폐교 위기를 넘겼다. 이 같은 성과는 바로 제비마을 주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귀농·귀촌자와 농촌유학가족을 전방위적으로 유치한 데 따른 것이다.

제비마을 주민들은 백봉초교에 전학 오면 집을 공짜로 주는 공공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함으로써 전국에서 제비마을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 폐교 위기의 백봉초교 학생수가 3배로 늘었다.

당초 폐교 위기에 내몰린 백봉초교 문제로 마을까지 소멸위기에 처하자 농식품부와 과산군이 제비마을을 체험관광 마을로 조성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을 통해 마을을 살리려고 했으나 제비마을 주민들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보다 백봉초교 폐교를 막는 게

급선무라 여겨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또 과산군의 추가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집을 공짜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농촌유학생 모집에 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비마을의 공공임대주택(행복나눔 제비동지)은 3개동에 총 14세대가 입주해 가족체류형으로 농촌유학 중이다. 18평(59.4㎡), 21평(69.3㎡)의 연립주택에서 보증금 없이 월 5만원~9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다.

한편, 백봉초등학교는 2024년도에도 과산군이 지원하는 '괴산 아이유학 시골 한달살기' 프로그램 대상학교로 선정돼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 초등학교생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간 지역학교에 다니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온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교육 부흥리 제비마을

'행복나눔 제비동지'는 2016년부터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총 14세대, 64명이 입주하여 백봉초 주변 마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차게 되었고, 누구든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 도란도란 '제비마을 영유아 돌봄'**
영유아 대상 학부모들의 공동육아 형태로 놀이, 방과후, 건강관리, 성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줌. 마을, 산채놀이, 독서, 영화감상 등 프로그램 진행
- '부흥리 다함께 돌봄센터'**
과산군청 위탁교육 2022년 7월부터 운영, 초등학생 대상: 학교, 먹거리 연구,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간식 제공
- 배움속속 '자연을 발견하러 아가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2020.7-), 학교와 지역사회 협조 산책 및 민체 운동, 양국, 협정, 합류제 지역출판, 보드게임, 간식 제공, 학구 등 프로그램 운영

여기서 살아요

지지배배 '행복나눔 제비동지'
충청북도과 과산군의 지원으로 행복나눔 제비동지 건립(2016년~2022년) 빌라형 주택 14가구 입주, 2024년 12월 단독주택 4가구 입주

도란도란 '부흥리권역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만들기' 국가공모사업으로 설립 부흥리 마을 주민과 학생들의 배움과 희망의 장소

▲부흥리 제비마을(행복교육)



▲백봉초교 현장활동

현장활동 / 간담회

• 한석호 위원장

백봉초교가 학교가 아주 이뻐요.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을에 단풍이 엄청 아름다운데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아와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그래요. 회원 가입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천연기념물 미선나무도 우리 마을에 많죠. 미선나무 원액을 활용한 회사도 있고요.

• 박은서 대표의원

제비둥지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면 그때 백봉초교에 유학을 온 학생들과 가족들은 지금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 안 하고 계속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보통 농촌유학이 단기적으로는 6개월부터 한 12개월 1년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여기도 그런 것인지?

• 한석호 위원장

저희는 이제 제비둥지 입주할 때 처음부터 백봉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조건으로 입주하고 있죠. 교육청 차원보다는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제비둥지에 입주하고 백봉초교도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하죠. 여기에 이주해 와서 신생아를 낳은 가정도 있어요. 올해만 신생아가 3명 태어났어요.

• 책임연구원

신생아들은 이제 제비마을 원주민이 되는 거네요.

• 장명영 의원

예를 들어, 여기 괴산군에서 태어나 타지역에서 직장생활하다가 또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한석호 위원장

그런 경우에도 백봉초등학교에 아이들을 전학시키는 학

부모 가정만 돼요. 반드시 학생이 있어야 해요. 그런 문
의가 엄청 들어와요.

• 박준엽 의원

백봉초로 유학을 와서 졸업한 학생도 있는지, 그리고 백
봉초교를 졸업한 후에도 가족들이 제비동지에서 살 수
있는가요?

• 한석호 위원장

졸업하고 괴산에서 중학교 진학한 아이들이 있죠. 2명인
가 3명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 둘째가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상급학교에도 진학해요. 근데 백
봉초교를 졸업하고 괴산군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더라
도 제비동지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 박준엽 의원

그러니까 백봉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자녀가 없으면
이제 그 집을 나가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 한석호 위원장

그걸 원칙으로 하는 것은 여기 백봉초교를 살려야 하니
까요. 애초 백봉초교를 살리기 위해 제비동지 사업을 시
작했으니 우선은 백봉초교에 유학오는 학생들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백봉초교 교장·교감 선생님의 학교현황 설명후 학교시설을 둘러보는 현장활동 실시



▲백봉초교 현장활동

4.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제비마을 부흥권역]



▲제비마을 부흥권역 (농촌유학가족 거주 행복나눔 제비동지)

일반현황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181-1
- 조성 : 1차 연립주택 6가구 건립
2차 연립주택 6가구 건립
3차 연립주택 2가구 건립 미 돌봄센터(2층) 건립
기타 부흥권역 체육관 건립
- 거주세대 : 총 14가구
- 농촌유학생 : 2024년(가족체류형 14가구 학생 30명)

충청북도의 농촌유학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도내 시군 교육청 차원의 농촌마을 유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유학센터의 경우, 충북 제천과 단양, 괴산 등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다. 이 외에 지역 인구소멸과 폐교 위기의 농촌마을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학교를 살리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충북의 농촌유학센터 현황으로는, 단양시 한드미농촌유학센터가 지난 2007년 센터형 농촌유학에 나서 2023년 기준 총 40명 내외의 유학생이 단양의 농촌마을 작은학교에서 유학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천시 희망숲산촌유학센터는 2011년 센터형으로 시작해 2023년 기준 7명의 유학생이 체류 유학중이다.

충북지역의 농촌유학에서 주목할 곳은 괴산군이다.

괴산군의 경우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자발적으로 폐교 위기의 지역학교 살리기에 나서 가족체류형 주택 무료제공은 물론 일자리 알선에도 적극 나서 전국적인 성공한 사례이다. 그중 가장 선도적이고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청안면 부흥리 주민들이 시도한【행복나눔 제비둥지】, 일명 ‘제비마을부흥권역’ 이다.

【제비마을 부흥권역】



▲제비마을 부흥권역 마을 안내지도

‘제비마을부흥권역’ 은 일명【행복나눔 제비둥지】로도 부른다.

제비마을부흥권역 주민들은 마을의 폐교 위기에 놓인 백봉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여겨 2015년 백봉초살리기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석호)를 구성하고 정부 지원으로 받게 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을 변경하고 대신 사업비 중 8억2천만원을 들여 자녀를 백봉초교로 전입학 시키는 가정이 거주할 18평 규모의 6가구 연립주택 건립했다.

2017년 5월 연립주택을 착공한 후 백봉초살리기 추진위원회는 건물 윤곽이 나오는 2018년부터 SNS 등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로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조건은 월 임대료 5만원에 초등 저학년이 있는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이전, 귀농인 우대 등이다. 주민들의 반신반의와는 달리 홍보한 지 한 달여 만에 모집가구의 3배인 18가구에서 문의를 했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주민면담을 통해 6가구를 선정했다.

연립주택 이름은 【행복나눔 제비둥지】이다. 새로 날아 들어온 제비들이 떠나지 않고 둥지에 머물렀으면 하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동문 한 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타지에서 들어온 가족들로 부모 12명, 아이 16명이 제비둥지로 이사 왔다.

1차에 들어오지 못한 도시민들을 대기자로 관리한 부흥권역의 백봉초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첫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후 괴산군에 6가구 추가 건립을 요청해 완공했다.

2차 6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100여 가구가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정식모집을 통해 6가구를 선정했는데 모두가 3자녀를 둔 가정이었다.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등 전국에서의 전입학으로 백봉초등학교는 현재 53명이 재학하는 학교로 성장했다. 20명 이하 재학생이 3년간 계속되면 분교 또는 폐교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도시에서 이주한 학부모들도 월 임대료 5만원으로 거주주택을 준 지역에 대한 보답으로 백봉초 아이들의 돌봄에 힘을 보탰다. 학원도 없고 지역아동센터도 없어 수업이 끝난 후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도 있을 아이들을 위해 방범대 사무실을 돌봄교실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괴산군은 청안면 부흥민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2층을 6억원 규모의 돌봄센터로 건축했다. 또 백봉초총동문회가 540평을 매입해 괴산군에 기부채납한 부지에는 23억원을 들여 체육관을 건립했다.

12가구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괴산군은 제비마을부흥권역에 2가구를 추가 건축해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흥권역에만 총 14가구의 연립주택이 지어진 것이다. 이 같은 주거공간 확보는 도시민들이 행복나눔 제비둥지와 백봉초교로 유학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괴산군은 【행복나눔 제비둥지】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 2022년에 행복보금자리,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통해 84가구 285명이 괴산군에 정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는 주거플랫폼, 귀농귀촌단지, 청년임대주택,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통해 전체적으로 203가구에 810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인구유입 성공사례 지역이 바로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이다.

이로 인해 청안면에 위치한 백봉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한때 16명까지 줄어들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농촌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현재는 56명까지 늘어 학교가 활기를 되찾으며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제비마을 부흥권역 활성화센터

현장활동 / 간담회



▲제비마을 부흥권역 간담회

• 박은서 대표의원

저희가 농촌 지역소멸 인구소멸 대응과 관련해 오늘 괴산 제비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괴산 제비마을, 특히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인구늘리기와 지역활성화, 그리고 농촌유학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지역 맞춤형 특별한 사업을 진행해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성공한 사례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사도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벤치마킹에 가장 적합한 방문지 꼽아 봤고요. 오늘 좀 많이 배워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한석호 위원장

안녕하세요. 제비마을 부흥권역 추진위원장 한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이렇게 멀리서 엄청 먼길을 오신 분들이 몇 군데 안 되세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담양군이 처음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담양군의회 군의원 분들께서 조그만 마을에 크게 배울 것 없는 것 같은데 일부러 찾아주셔서 더욱 영광이고요.

저희는 이제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거예요.

농촌유학, 산촌유학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유학은 이제 왔다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완전히 정착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게 원래 권역사업이었거든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이라고 전국적으로 농식품



▲박은서 대표의원



▲장명영 의원



▲박준엽 의원



▲한석호 위원장

부에서 했던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 그 사업을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 거죠. 알고 계시겠지만 권역사업을 하면은 무조건 일단은 그냥 마을가꾸기 사업이 대부분 이예요. 마을 가꾸기사업은 보통 꽃길가꾸기, 구름다리 놓고, 데크길 설치하기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마을도 애초엔 1억 투자해서 향수 테마로 구름다리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구름다리 출렁다리가 수백 개인데 이런 조그만 마을에 한 100m짜리 걷는다고 그래서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다른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했죠.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결국, 관찰했고 그래서 조성된 것이 제비마을 부흥권역 '행복나눔 제비동지' 조성사업이죠

• 박은서 대표의원

그러면, 제비마을 부흥권역 '행복나눔 제비동지' 조성사업은 어떤 것인지요?

• 한석호 위원장

2018년도가 되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백봉초등학교가 유치원 2명, 학생 14명으로 이렇게 학생수가 뚝 떨어져 난리가 났죠. 학생수 100명이 있다가 불과 3~4년 사이에 꺾꺾꺾꺾 빠지더니 16명으로 떨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서 14대째 살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물건을 팔아줘서 여태까지라도 자식 키우고 먹고 살았는데 학교가 없어지는 게 너무 내가 제일 속상했죠. 그래서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먼저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

게 됐죠.

• 박준엽 의원

학교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추진했는지요?

• 한석호 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집안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학부모들을 만난 거죠. 집안 단속을 하려면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지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간다고 그럴 거 아니예요.

그리고 백봉초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섰죠.

우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행복동지 제비마을 조성사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엄청 고생했죠. 사업비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변경을 안해주니까요. 창조적 마을이 되려면 마을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창조적 마을이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선 우리 마을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학생들도 백봉초교에 유학을 오든지 할 것 같아 유학생 유치를 위한 주택건립을 가장 먼저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런 이유로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사업을 변경할 수 있었죠.

• 장명영 의원

제비마을 조성사업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 **한석호 위원장**

‘행복나눔 제비동지’라는 주택을 짓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우리가 이리이러한 사업을 빼고 그러면 한 4억 5천 정도를 적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돈 갖고 짓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괴산군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짓겠다.

그럼 나머지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군수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보자들에게 찾아가서 꼭 좀 해주세요 요청했죠. 결국 현 군수에게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권역사업비를 군비로다 5억을 추가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5억을 확보하고 9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첫 ‘행복나눔 제비동지’ 6가구를 건립했죠.

• **박준엽 의원**

백봉초교를 살리기 위해 체류형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제비동지를 건립했는데 입주자 모집은 어떻게 하셨는지?

• **한석호 위원장**

아이들을 시골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깨끗한 물로 씻고 행복하게 키우려고 하고자 하는 학부모 가정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데 1년 동안 그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20가구 정도 신청을 했어요. 첫번째 6가구를 다 채웠고, 유학으로 백봉초교 학생수가 13명 정도 늘었어요. 1년 만에 전교생 16명에서 13명이 늘어 29명이 된거죠. 그래서 폐교를 이제 서서히 면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많았지만 그래서 6가구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이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6가구 건립비를 또 지원해 줬죠. 그런데 군의회와 다른 지역에서 왜 백봉초교에만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고 아우성이어서 괴산군이 다음해에 각 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내 10개면에 면당 10가구씩 체류형 농촌유학 주택을 짓도록 예산을 지원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마을 때문에 괴산군 면지역에 총 90가구가 지어져 괴산 인구도 늘리고 폐교 위기의 농촌학교에도 유학생이 늘어 학교를 살리게 된 성공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군수님 저더러 이런 말을 했죠 “한석호 위원장이 있어서 우리 괴산군 인구가 500명 늘었다” 그래요. 실제로 괴산군은 그렇게 농촌유학을 위한 주택건립 사업이 번져갔어요. 우리 담양군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요?

• **책임연구원**

담양군에서도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는 있죠. 아직은 시작 단계라 미흡하죠. 그래서 오늘 선진사례 지역인 제비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면, ‘행복나눔 제비동지’는 현재 6가구가 늘어 총 12가구 인가요?

• **한석호 위원장**

이후에 2가구를 추가로 지었어요. 추가로 6가구를 지어 놓고 거기 2가구를 지을만한 공터를 남겨놔있죠. 그리고 군수에게 말해서 공터를 놀리지 말고 집을 지어달라 해서 4억원을 지원받아 서 2가구를 더 건립해 지금은 총 14가구가 됐죠.

• **책임연구원**

그러면, 여기 부흥리 권역의 제비마을 성공사례 파급효과로 괴산군 내 다른 면지역은 각각 10가구씩 건립해서 지금 농촌유학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요?

• **한석호 위원장**

그렇죠. 면마다 10가구씩 건립했고 농촌유학생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모두 입주했는데 우리와 다른 것은 거기는 모두 괴산군에서 관리해요. 근데 우리는 괴산군이 저희에게 위탁관리를 해요.

• **박은서 대표의원**

마을인구 늘리기를 통해 백봉초교를 살렸던 제비동지 건립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요?

■ 행복나눔제비둥지 현장활동



• 한석호 위원장

행안부 사업으로 신청을 한 마을 돌봄센터가 있어요. 우리는 면이 아니니까 청안면 부흥리니까 '부흥리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 옆에 돌봄센터를 증축을 했죠. 이것도 엄청 학부모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돌봄센터가 있다는 게 면단위에도 없는 데가 많을 텐데 우리 마을에는 있는 거죠.

• 책임연구원

돌봄센터와 마을 민원실을 새로 지은 건가요?

• 한석호 위원장

민원실은 원래 있던 건데 그 옆에 우리마을 돌봄센터를 증축한거죠. 괴산군에서 파견나온 행정공무원 2명이 근무해요. 경찰서로 치면 민원실이 파출소죠. 그래서 청안면사무소 '부흥 민원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를

행안부 사업으로 우리가 10억을 따내서 리모델링을 했죠.

• 장명영 의원

그 외에 부흥리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한석호 위원장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또, 부흥권역실내체육관인데 한 25억원 가량 들어갔죠. 면 단위도 아니 마을 단위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은 그리 흔하지 않은 사례이죠. 체육관 건립하는데도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백봉초교 아이들 학회발표회도 하고, 사물놀이 공연도 하고,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죠.

• 장명영 의원

더 많은 백봉초교 농촌유학 가족 유치를 위해 제비둥지를 더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 **한석호 위원장**

제가 애초에 땅 585평을 다 내놔는데 제비동지 짓고 남은 땅에 또 건립하려고 해요. 5가구 가량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활용도를 생각해서 15평짜리 2층 복층으로 지으면 30평이 되는 데 그렇게 건축하려고 추진중이죠. 아마 4가구 정도 더 지을 것 같아요.

• **장명영 의원**

제비동지에 입주한 유학생 가족들에게 임대료는 받습니까?

• **한석호 위원장**

실평수 17평짜리는 5만원~6만원 받고요. 관리비, 전기세 그런 건 다 본인이 내죠.

• **박준엽 의원**

임대료는 과산군에 내는 건가요?

• **한석호 위원장**

과산군에 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내는 거죠. 군에서 임대료를 받는 다른 면지역은 월 12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은서 대표의원**

제비동지에 몇 년도부터 입주하기 시작했고 백봉초교 유학생은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 **한석호 위원장**

2019년도 3월부터 입주했고, 현재 유학생은 백봉초교 전교생 56명중에서 38명이니까 원주민 학생들 보다 더 많은 편이죠.

• **책임연구원**

그러면, 마을 인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유학생 포함해서요.

• **한석호 위원장**

가족체류형 유학생과 부모들까지 우리 마을에만 인구가 60여명 늘었죠.

아이들 때문에 여기 들어와 살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치킨집 하는 사람도 있고, 주말부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 **책임연구원**

현재 마을 전체 인구가 몇 가구에 몇 명 정도인가요?

• **한석호 위원장**

제비동지를 포함해서 우리 부흥권역내에 부흥1리, 2리, 3리, 등 5개 마을에 250가구 500명 가량 됩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가구도 있지만 대략 한 가정에 2명 이상 평균이 되죠.

• **박준엽 의원**

아까 4가구 더 짓는다고 했으니 제비동지에만 향후 18가구에 유학생 포함해서 100명 가량 되겠네요?

• **한석호 위원장**

주말부부 하는 사람들도 우리 마을에 주민등록은 꼭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 **책임연구원**

우리 담양이나 전남지역에서는 농촌유학생이나 가족들에게 교육청에서 체류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월 30만원 또는 60만원, 많은 곳은 100만원 까지 지원받기도 하는데 백봉초교는 유학생 가족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주택(제비동지)을 제공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제공 혜택 외에 여기 유학생들에게도 어떤 지원이 있는지요?

• **한석호 위원장**

이제 충북교육청 차원의 농촌유학 지원이 아직 없어요. 그 문제로 교육장님하고 협의도 했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박준엽 의원**

여기하고 우리 담양군이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위원장님께서서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학생들을 여기에서 이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주자들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담양에서 이제 도입하는 농촌유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단기 6개월이나 1년이더라도 한번 데

리고 살고 싶다 그러면 학적이나 주소지는 그대로 서울에 두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담양에 내려와 일시적인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그학교로 돌아가는 시스템 이예요. 그렇다보니 당장 학교의 학생수는 늘리는 효과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백봉초교 시스템처럼 주소지를 옮긴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농촌학교를 살리거나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죠.

• 한석호 위원장

그니까 농촌유학도 유학이지만 아주 정착을 할 수 있게 집을 더 지으세요. 더 지어야 돼요. 더 지으셔서 갖고 유학할 사람은 유학하고 정착할 사람은 정착하고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아요.

• 박준엽 의원

저희가 제비마을과 백봉초등학교에 벤치마킹 온 게 그겁니다. 우리 지역과는 다른 형태로 농촌의 폐교 위기 작은학교를 살리고 인구도 늘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해서요.

• 한석호 위원장

저희도 유학 올 사람은 그냥 자기네들 나 여기서 몇 개월

※ 부흥권역센터 간담회와 제비동지 현장활동에 이어 백봉초교로 이동.

교장교감 선생님을 만나 학교현황 설명 및 현장활동을 실시

살다 갈게 이렇게는 안 하지. 그냥 왔다가 그냥 1년이고 살다 가면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아직은 여기 교육청이나 이런데서는 지원이 없지만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나 돌봄센터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저녁밥까지 먹여서 7시에 집으로 보내니까 부모들은 아주 좋은거죠.

시간이 있으니 직장을 찾아 일할 수도 있고 취미나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래요. 아이들도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그니까 아예 여기에 정착하려는 가정도 있어요.

• 박은서 대표의원

우리가 제비마을과 백봉초교 사례를 토대로 교육청의 정책만 가지고 농촌유학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사업을 통해 농촌유학과 지역소멸을 대응하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제비동지와 백봉초등학교까지 오랜 시간 동안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담양군 농촌유학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5. 기타 성공사례 지역

(1) 해남군 북일면 【북일초등학교】

- '작은학교 살리기' 민·관·학 총력
- 농촌유학 활성화로 북일면 인구 150명 증가



▲해남 북일초등학교

전남도내 농촌유학 성공사례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해남군 북일면 북일초등학교다. 2024년 1학기 기준 북일초등학교에는 30명(20가구)이 유학중이며 모두 장기유학생이다. 해남군 전체적으로는 총 71명(44가구)이 농촌유학중이다. 북일면자치회는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연계해 '학교가 살아야 지역도 산다'는 문제를 지역의제로 선정하고 민·관·학이 힘을 합쳐 폐교 위기의 북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활동이 전국적인 이슈를 낳으며 150여 명의 북일면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작은학교 살리기'의 성공 모델이 됐다.

북일면과 주민자치회, 해남군은 농촌빈집 활용은 물론 유학생 가족을 위한 다세대주택을 지어 저렴한 비용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해남군은 나광주전남본부와 협약을 맺고 15세대가 입주할 2층 연립주택을 북일면에 지어 농촌유학생 가족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해남군 농촌유학-작은학교 살리기

북일초등학교의 농촌유학 성공사례에 힘입어 삼산초·계곡초·현산초·마산초·두륜중·현산중을 비롯 해남고·해남공고 등 초·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해남에서 농촌유학중인 도시학생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까지 이어지는 장기유학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북일면 성공사례 영향으로 현산면, 계곡면에서도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적극 나서 농촌빈집 활용을 통한 체류형 장기유학생 유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기유학은 5년 이상 체류를 조건으로 가족들에게 지자체와 마을이 주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해남군의 북일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가 전남도내 첫 번째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북일면 사례처럼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가 인구유입에 효과가 크고 지역사회 공감대도 조성되고 있어 2023년에 도내 16개 시·군에 총 285억원의 사업비를 배분했다. 또 전남도와 해남군도 지역소멸 기금과 귀농 귀촌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도시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도 농촌 빈집 구하기 활동도 더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2) 기타 수범사례 학교

• 교육부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우수사례(2021년)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 자원을 학교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정립 및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특성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아래 농어촌 지역만의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의 우수한 프로그램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또,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유산 등 농어촌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도 있어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의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우수사례는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한 것으로,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운영 사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전남 화순군 [천태초등학교]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진 천태초등학교는 전교생 42명의 작은 학교로, 특히 전교생 중 21명이 도시 학교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천태초교는 전남교육청이 실시하는 농촌유학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서울 학생들을 유치하고, 지역의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연친화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늘·별·구름·달 농촌유학 프로젝트로 행복 찾기'라는 주제 아래 허브하우스 운영, 꼬마농부 체험 등 다양한 체험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 계발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수영과 골프 등 자율동아리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운 '밀착교육'도 운영해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천태초등학교 학생들의 감자캐기 활동

• 경남 남해군 【고현초등학교 · 도마초등학교】

남해 고현초등학교와 도마초등학교는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에 공동 응모해 선정됐다. 그간 두 학교는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두 학교 간 거리가 4.5km에 불과해 폐교 직전의 상황까지 마주했으나 경쟁 대신 학교 간의 장점을 살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면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현면 인구유치 및 학교살리기 캠페인'은 1개 면내에 고현초와 도마초를 동시에 활성화시킨 특이 사례로 손꼽힌다. 캠페인을 통해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자녀를 동반한 38가구, 190여 명의 인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면민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고현초와 도마초는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운영, 21개 방과후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공동 운영 등을 통해 소인수 학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고현초교는 학생수 22명에서 50명으로, 도마초교는 20명에서 47명으로 증가했다.



▲함께하는 한마음 공동체 놀이 고현초·도마초 학생들

• 경남 함양군 【안의중학교】

안의중학교는 지난 1980년대에 27개 학급, 1900여 명이 다니는 학교였으나 현재 전교생 83명의 농촌형 학교로, 우리나라 농촌 학령인구 감소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폐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의중은 그간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왔다. 이에 1인 1악기 · 텃밭가꾸기 · 학생 맞춤형 행복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높여 지난해 학생 수 15명이 증가하는 등 학생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됐다.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습자들의 흥미도와 성취동기를 자극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아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의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상추 수확

• 경북 성주군[수륵중학교]

수륵중학교는 '꿈을 심어 사랑이 피어나 행복으로 퍼져나가는 수륵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교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초·중학교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과 국악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도 힘써오며 2018년 23명에서 현재 32명으로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륵중은 농어촌 작은 학교의 장점인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역과 연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민의 관심·참여로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케스트라 참여하고 있는 수륵중학교 학생들

정년7주년 기획 / 농촌유학, 지방소멸 막는다

기획취재

지방소멸 대비, 담양 농촌유학 활성화

담양뉴스는 올해 정년7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계층마다 할 가장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믿는 인구구조와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위한 기획취재에 나선다.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담양뉴스는 정년7주년 기획취재로,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담양뉴스는 정년7주년 기획취재로,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④ 국내 농촌유학 수법사례 [전북·충청·강원권] ④



▲전북도 농촌유학 시설 모습



▲충청남도 농촌유학 시설 모습



▲강원도 농촌유학 시설 모습

■전북의 농촌유학 정책 및 수법사례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충청의 농촌유학 정책 및 수법사례

충청남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의 농촌유학 정책 및 수법사례

강원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도 농촌유학 시설 모습

■농촌유학 수법사례(전북·충청·강원권)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농촌유학 수법사례(전북·충청·강원권)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특약기고



전남대학교 교수 김대환

전남대학교 교수 김대환은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교수 김대환은 농촌유학 1년 인턴제 운영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1년 인턴제 운영이 가능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농촌유학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우리 시대 끝판왕 과제, 담양을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1)

제2절 농촌유학 연계 인구소멸 대응 수범사례 현장활동

1. 전남 곡성군 【스테이션 1928】



▲곡성 스테이션 1928 전경

일반현황

- 위치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051-8번지
- 부지 : 25,415㎡(연면적 2,263㎡)
- 조성 : 2020년~2024년(5년간)
- 사업비 : 136억원
- 규모 : 스튜디오 1동, 웰컴센터 2동, 창작공방 1동, 거주공간 4동(20세대)

- 전남형 첫 지역성장 전략사업 '곡성 스테이션 1928' 준공
- 폐교 활용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

【곡성 스테이션 1928】은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첫 성과물이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그동안 중앙 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하면 전남도에서 전폭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프로젝트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곡성 스테이션 1928】은 곡성군이 노령화 가속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청년과 은퇴자, 귀촌인을 곡성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폐교한 오곡초교 부지를 활용,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사업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사람을 이어주는 새로운 거점공간으로써, 스테이션과 오곡초 개교 해인 1928년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

총사업비 136억원을 들여 2만5415㎡ 부지에 건축면적 2263㎡ 규모로, 건축학교와 숲놀이학교, 아토피·치유학교, 청춘작당(100일간 곡성살기) 등의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됐다.

외부 인구유입을 위한 거주공간은 총 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접 관광지인 침실습지, 동화정원, 기차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돼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소멸을 막고 나아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계 협력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곡성 돌아오지촌(村) 조성사업' 과 농림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체류·교육·체험의 3박자가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런케이션' 관광의 모범사례가 돼 더욱 많은 방문객을 불러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런케이션은 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교육관광을 뜻한다.

I. 체류형거점공간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

사업 목표

- 교육, 체험, 거주가 결합된 복합공간 조성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 돌파구 마련
- 자생화된 콘텐츠 도입(국립건축학교, 숲 놀이학교)으로 관광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개요

- 위 치 : 곡성군 오곡면 오치리 1051-8번지 (구)오곡초등학교 일원
- 부지면적 : 25,415㎡(면적 : 2,263㎡)
- 사업기간 : 2020. ~ 2024.(5년간)
- 사업비 : 136억원(도비 58%, 군비 78%)
- 사업내용 : 스투디오 1928 1동(1,850㎡), 힐링센터 2동(1,88㎡), 창작공방 1동(225㎡)

추진 상황

- 전남형 지역성향 전략사업 공모 선정 : 2019. 9.
- 전남형 지역성향 전략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21. 12.
- 곡성스테이션 1928 공사발주 및 착공 : 2022. 6.
- 곡성스테이션 1928 준공 : 2024. 4.

향후 계획

- 운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4. 6.
- 운영관리 행정절차 완료 및 운영주체 선정 : 2024. 7.
-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 : 2024. 8.



II.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사업 목표

- 지역의 문화, 희망인 가족과 청년이 곡성을 돌아올 수 있도록 체류형 거점 플랫폼 구축
- 「곡성스테이션 1928」 건축학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곡성 만들기 추진

사업 개요

- 위 치 : 곡성군 오곡면 오치리 948-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0,383㎡(면적 : 1,068㎡)
- 사업기간 : 2022. ~ 2025.(4년간)
- 사업비 : 73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70%, 군비 3%)
- 사업내용 : 숙박동 21동, 환송센터 1동 (1단계 : 숙박동 11동, 2단계 : 숙박동 10동, 환송센터 1동)

추진 상황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실시계획인가 : 2022. 6.
-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확정 : 2022. 9.
- 1단계 공사발주 및 착공 : 2023. 6.
- 2단계 공공건축기획심의 완료 : 2024. 5.

향후 계획

-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1단계 준공 : 2024. 6.
-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2단계 발주 및 착공 : 2024. 9.
-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2단계 준공 : 2025. 12.



현장활동 / 간담회



▲곡성 스테이션 1928 간담회

• 곡성군 인구정책과장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저희 곡성군 인구정책과는 6개팀이 있고, 지원팀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 하고요. 자세한 것은 지원팀장 조태영 지원팀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곡성 스테이션 1928】은 아마도 뉴스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요, 저희 곡성군이 이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으로 스튜디오 1동, 웰컴센터 2동, 창작공방 1동 등을 건립하는 것인데 올해 4월에 완료를 했고 사업비는 약 13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8월에 조례를 만들어 9월부터 위탁관리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운영 계획을 짜보니까 운영비만 연간 6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73억원을 들여 숙박동 21동, 환송센터 1동 등 체류형 거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데, 청년들이 곡성에 돌아와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체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에서 3개월, 6개월 살면서 지역정보도 알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곡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박은서 대표의원

곡성 스테이션1928과 체류형 거점 플랫폼의 숙박동 입주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스테이션 1928에 목조건축학교, 숲놀자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입주 대상자 조건으로 제시하고, 최소 2주~3주 내지 최대 12주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책임연구원

2단계 돌아오지촌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나 또 곡성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이곳에서의 체류기간 등은 어떻게 됩니까?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최대 6개월 이상, 그리고 곡성에 농촌유학 온 가족들이나 곡성에서 살고자 하는 이주민들에게 최대 5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박준엽 의원

저희가 여기 현장활동 후에 오산초등학교로 갈 건데 그 학교에 유학하는 가족들에게 5년까지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물론 이곳에서는 오산초교 유학생 뿐 아니라 곡성에서



▲박은서 대표의원



▲장명영 의원



▲박준엽 의원



▲곡성군 인구정책지원과장



▲곡성군 인구정책지원팀장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도 최대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죠.

• 장명영 의원

예를 들어 여기는 교육 환경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좋잖아요. 여기서 농촌유학으로 생활해보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곡성군에서 어느 지역에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매입을 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곡성군 관내 빈집을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장명영 의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는 모든 시설 환경도 좋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기를 나가서 내가 여기 곡성에서 거주를 해야겠다 했을 때 여기하고 약간의 괴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을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부모가 어디 좋은 직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 학생이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있어야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나와서 주거를 또 해야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계가 돼야되지 않나 그런거죠.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내 빈집이라든지, 청년 하우스센터, 지금 짓고 있어요.

화순군의 만원 주택과 유사한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만

원 주택, 그 사업을 좀 더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빈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빈집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빈집을 일정 부분 리모델링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분들을 유치하는 방안, 그 부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은서 대표의원

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빈집을 아무리 흙물처럼 있어도 외지에 있는 분들이 안 내놔요. 근데 이제 곡성도 상황은 비슷한가요?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상황은 비슷한데 이제 그거를 타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우리 곡성읍내 중앙 시가지 부분에도 빈상가도 많이 있고 집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먼저 집중해서 공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의 먼 지역에 아파트가 사실은 공실률이 좀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를 내년에는 좀 협약을 해가지고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고속도로 주변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연계해 스테이션1928 거주후 곡성에서 장기 거주하거나 정착하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식으로 제공하려고 추진중입니다.

• 장명영 의원

이제 여기서 체험을 하고 여기 과정을 겪고 여기서 거주하겠다는 사람들에 임대료 저렴하게 해서 임대해 주고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곡성 스테이션 1928 현장활동

• 박은서 대표의원

스튜디오1928 여기 본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현재는 건물만 완료돼 있는데 이제 허가가 나서 운영기획 용역을 다 끝내냈고, 8월에 조례안 상정해서 9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은서 대표의원

위탁관리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가족 스테이 같은 경우는 한 20평 정도 거주공간인데, 그러면 월 30만원 가량, 30만원 해봐야 1년에 360만원 인데 근데 지금 원룸 같은 경우 월 40만원~50만원 이므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원룸처럼 에어컨, 냉장고 등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추게 됩니다.

• 곡성군 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정하려고 해요. 이곳에서 최소

6개월 기준에서 1년, 2년 동안 거주한 후 곡성군 관내 다른 곳에서 차분히 집을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죠.

• 장명영 의원

이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환경적으로 친환경에 가깝잖아요. 쉽게 말해서 관광객도 좀 유치하고 숙박시설을 좀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 곡성군 인구정책 지원팀장

스튜디오 1928에서 저희가 12주 과정으로 목조집을 지을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머물면서 본인들이 살 집이나 장소를 찾아보고 저희도 지원하면서 집을 지으면 만족도가 훨씬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지금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 장명영 의원

이게 마인드의 차이인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위탁을 이렇게 했을 때, 또 지정을 하더라도 계속 예산이 투입

이 되고 적자가 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대비책은 있는지?

• 곡성군 인구정책과장

스테이션1928 이나 돌아오지촌 사업이 장기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요.

• 박준엽 의원

어떻게 보면 이곳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 먼저 찾아 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건축 같은 것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데 농업 쪽으로라든가 이런 교육시설 이런 것들도 좀 인근에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혹시 그와 같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곡성군 인구정책과장

여기 위치도 보시면, 2단계 '돌아오지촌' 사업이 농촌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또 유통 복합센터가 들어올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약간 집적화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 마치고 곡성 스테이션1928 주요건물 및 숙박동 답사 등 현장활동 실시

■스테이션 1928 현장활동



2. 담양군 대전면【잇다자유발도르프 학교】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일반현황

- 위치 : 담양군 대전면 서옥화암길 34-20
- 개교 :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첫 개교
2016년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로 이전
2017년 담양군 수북면 성암야영장으로 이전
2020년 담양군 대전면 현위치에 신학사 준공 이전
2022년 전라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학생수 : 2024년 현재 66명
- 주소이전 : 2016년~2024년 기간중 담양으로 총 83명 주소이전
(학부모 및 교사 45명, 동행가족 6명, 학생 32명 등)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잇다자유 발도르프학교】는 발도르프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대안학교이다.

발도르프 교육은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해 창시된 교육방법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한다. 이 교육방식은 예술, 음악, 수공예, 자연과의 조화 등을 중시하며,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잇다자유 발도르프학교는 이러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8년 담임 과정과 4년 상급과정을 통합한 학제로 12년제(초·중·고)로 운영하는 학교시스템이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부모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대안학교이며 수업료는 자율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전인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균형있게 지원하며, 각 개인의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 활동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환경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잇다자유 발도르프학교는 이러한 교육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비람직한 21세기 개혁교육 모델이며 12년간의 섬세한 교육과정을 통해 언어, 수학, 신화와 역사, 농사, 집짓기, 지리학, 식물학, 광물학, 천문학, 물리학, 연극, 수공예, 목공예, 음악, 미술, 체육, 국악,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과목을 학습한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발도르프학교가 16개교 있으며 이중 호남권에 2개교가 있고 모두 담양에 있다.(서울·경기 11개교, 충청·대전 2개교, 부산 1개교, 담양 2개교)

**우리들의 작은 걸음, 이곳으로 모여 만들어진 잇다학교
100년의 가치, 여기에 있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부모와 연계합니다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교사회는 학교정신을 구현하는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교육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모든 교사는 교사, 학부모들과 투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잇다의 수업료는 자율납부입니다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는 자립적인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발도르프교육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수업료 자율납부제를 실시합니다.



잇다는 12년제(초·중·고)로 통합 운영됩니다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는 8년 담임과정과 4년 상급과정을 통합된 체계로 운영합니다.
12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온전한 사이를 찾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합니다.



배움을 함께 하는
일이 삶이 되는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잇다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는
담임과정(1~8학년), 상급과정(9~12학년)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신·편입생담당 행정실을 통해 상사문의 가능합니다.

☎ 상담문의 : 061-382-2016

미래를 여는 교육, 자유를 모한 교육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를 후원해 주세요!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는 새로운 교육을 향한 열정으로 일과 삶이 일치되는 교육을 위해 학원, 학부모,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 학교입니다.
자유로운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어 갈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세요.
미래를 여는 교육, 아이가 즐거운 학교, 잇다와 함께 해요~

참여방법 후원자님의 계좌정보(은행명과 계좌번호), 출금일, 정년월일 등을 알려 주시면 일시 또는 정기 후원을 등록해 드립니다.
☎ 061-382-2016 또는 QR코드로 접속

후원계좌 농협 351-1290-3893-93 (사)잇다자유발도르프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잇다에는 있다
아이를 기다려주는 교사
아이와 함께 호흡하는 자연
아이와 함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부모
제 빛을 내기 위해 매일매일 영글어가는 아이들
온전함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견고 마음을 견디다



현장활동 / 간담회



▲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간담회

• 학부모회장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교가 월요일부터 방학에 들어갔고요, 또, 지금 같은 시간 전라남도에서 대안교육기관 조례 개정안 간담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학교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은 못했습니다.

• 학교관계자

전라남도 의회에서 우리 지역 이규현 도의원 주치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다하여 우리 학교에서도 몇 분이 갔습니다.

• 장명영 의원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군도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 우연치 않게 우리 담양군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4명 중에 3명이 여기에 왔으니

잇다발도르프학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어보면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박은서 대표의원

저희가 원래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이제 농촌유학에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군의회 차원에서 연구모임을 진행 중인데, 잇다발도르프 대안학교가 장명영 의원님 지역에 소재해 있고 대안학교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자해서 왔어요. 공교육에서는 농촌유학에 대해 굉장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대안학교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아이의 교육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아예 이사를 오거나 해서 오히려 대안학교가 인구소멸 지역에 효과적인 면이 많은 분석이 있어서 오늘 학교를 방문을 한 것인데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학부모회장

장명영 의원님은 저희 학교에 여러 번 방문하셔서 저희



▲박은서 대표의원



▲장명영 의원



▲박준엽 의원



▲학교관계자



▲책임연구원

학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은 광주에서 공교육을 하다가 대안 학교로 옮긴지 올해로 2년 차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남구에서 지금까지 등하교를 위해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 굉장히 힘들어요. 생업에도 종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담양으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 마땅한 집을 구하기 어려워요. 2년 가까이 계속 집을 알아봤는데, 집도 없지만 저희가 이사 오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담양으로 아예 집을 옮기게 되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시키면 굳이 광주로 다시 갈 필요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학교 많은 학부모들이 담양으로 아예 이사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죠.

• 장명영 의원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공교육에서는 농촌 유학 오는 가족들에게 담양군도 모듈러 주택을 제공하거나 하는데 정작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못해주고 있죠.

잇다발도르프 학교는 올해도 신입생 9명이 들어왔고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최장 12년을 다니게 되는데도 공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지원과 혜택이 없는 실정인데, 사실은 이런 학교가 공교육으로 하는 농촌유학 보다 오히려 지역 인구늘리기에는 더 일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담양군 담당 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직전을 대안학교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관계자

자료 두번째 페이지 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남도 초중고 학생들이 토탈 6만6,900명이 감소했다고 도교육청 자료에 나오거든요. 고등학생이 2만 7천명이 줄었고 중학생이 2만 2천명, 초등생이 1만6천명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서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초등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을 좋은 공간에서 잘 키우지만 입시를 위해서는 무조건 도시로 나가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키겠다는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다라고 보면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한빛고등학교나 이번에 새로 생긴 쌍교에 있는 송강고나 이런 경우도 저희와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는 기숙형 학교거든요.

부모님들이 담양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말지 우리처럼 아이 학교를 위해서 부모들까지 지역으로 오는 것은 아니예요. 이 학교들은 고교 3년 동안만 담양에 머물게 되지만, 저희 학교는 최장 12년을 담양에서 보내게 되요. 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 모두 83명이 담양으로 주소를 옮겼거나 이주를 했는데 어느 사례가 더 농촌유학이나 지방소멸에 대비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까요?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면하고 고향사랑기부금 MOU도 체결하고 저희가 한 700만원 정도 전달했거든요. 12월경에 2차 기부를 진행할 거고요.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곳이 있다면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오히려 지역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방소멸을 예방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 박준엽 의원

그 의견과 관련해서는 오늘 동행하신 분들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고 오기는 했어요.

우리 지역이 향후 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을 대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건데, 그게 학교를 지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잇다발도르프 학교 학부모들께서 담양에 학교를 세우고 많은 분들이 주소를 옮기고 이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네요. 학교가 사라지면 남아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들을 챙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농촌유학도 하는 것인데 농촌유학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소멸 기간을 늦추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소멸 단계를 최소한 늦춰 보고자 그 취지로 하는 거라는 생각 이예요.

제가 교육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인데, 대안교육과 관련해서도 형평성에서는 어긋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담양군 안에 있는 여기도 공교육의 우리 아이들과 똑같거든요. 그런 접근법에서 똑같이 바라보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또, 의회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장명영 의원

참고로 이 학교가 담양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주한 사례가 83명이라는데 관내 다른 대안학교들도 아마 이 정도의 담양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공교육 분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양관내의 대안학교에도 그 나름의 정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학교관계자

너무 이해가 되는 측면이죠. 그런데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예산의 문제잖아요. 담양군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

가 주력으로 관심을 갖고 기대를 거는 것은 현재 전남도의 조례 제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교육 같은 경우에 1년에 학생 1인당 지원액이 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대안학교 학생들의 10배죠.

학생 100명 정도 규모의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데 교육청 예산이 300억 정도 필요하다는데 저희 같은 대안학교 60명 학생이 국가 교육예산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책임연구원

이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은 하고 학력은 인정받습니까?

• 학교관계자

아직까지는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하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전세계적으로 1919년에 시작한 발도르프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대안학교가 약 1,100여개 정도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교육과정의 몇 퍼센트 이하를 이수하면 무조건 학력 인정과 전액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 책임연구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던 해남 북일면이 면 지역인데 도 농촌유학을 통해 인구 150명을 늘렸어요.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의 학교를 살리고자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이 학교가 100명 정도의 학생, 학부모가 담양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해남 북일면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데, 장명영 의원께서 지난번에 제안했듯이 농촌유학 활성화가 굳이 꼭 공교육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대전면 지역에, 학교 근처에 빈집이 있거나 또는 아파트에 빈 공간이 나왔거나 이런 거를 담양군에서 임대하거나 수리해서 이 학교에 다니고 담양

에 이주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선 전원주택 지어 이사 오려면 한 5억 가져야 되니까 엄두를 못 내잖아요.

• 박은서 대표의원

지금 학생 수가 66명인가요? 그리고 가족 체류로 담양에 온 가족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학교 근처에 거주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아파트를 알아보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담양으로 와서 사시려고 하는 학부모님들 가족이 몇 세대나 되는 건지, 여건이 되면 오시려고 하는 가정이 지금 몇 세대나 되는 건지 알아보려고 거죠.

• 학교관계자

학생가족으로 보면 어른들의 수는 95명인가 되고요, 이 중 45가구에 학생 66명이 담양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학부모회장

현실로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된다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준엽 의원

잇다발도르프학교에서 현재 졸업생이 좀 나왔나요?

• 학교관계자

아직 졸업생은 없고요, 올해 11학년이 최고학년입니다.

• 박준엽 의원

그럼, 내년에 12학년 졸업생이 나온다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학생...

• 장명영 의원

오늘 이 간담회 자리에 지역 언론사, 지역주민도 오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까지도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논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저희 군의회 연구모임에서도 앞으로 전남도나 담양군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 박은서 대표의원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저도 대안학교에 관심이 들여다 봐지고 또 어떤 문제가 올라왔을 때 허투루 봐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도 발상의 전환이 좀 되더라고요.

그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 아이들이다 하고 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자 하는 취지인데, 자꾸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역하고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학부모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담양에 거주를 하실 생각이시고 하면 이거에 있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책임연구원

그동안 담양군 농촌지역 활성화의 범위를 공교육에만 포인트를 맞췄는데 이제 농촌의 공동체를 살리는 한 방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잇다발도르프 대안학교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를 잘 풀어내면 담양군이 지방소멸 대응의 한 방안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의회 연구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유학 활성화가 꼭 폐교만 살리는 것이 다는 아니고, 지금 들어와 있는 대안학교도 잘 살려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주 인구를 늘려가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농촌유학 활성화의 범위에 대안학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준엽 의원

오늘 담양군 실무팀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 행정에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

고요, 돌봄에 있어서도 담양군이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와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담양군 인문학교육팀장

도교육청 차원에서 2022년도에는 아마 대안학교에 관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지금 교육청에다 등록을 하신 비인가 학교로 알고 있어요. 이제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대안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 학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은 어느정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은서 의원

오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담양군에도 관심을 갖고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장명영 의원

2022년도에 대안학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담양군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를들어 도교육청하고 우리 담양교육청 합쳐도 공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 급여는 못 맞춰줘요. 그러니까 우리 담양군이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보여서 해주자는 뜻이에요.

• 책임연구원

잇다발도르프학교 같은 이런 대안학교는 언제까지 담양에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담양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들어와 지역의 인구 늘리기에 일조하면서 농촌 공동체에 활력도 불어넣고 있으니 담양군에서도 뭔가 이런 학교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명영 의원

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헛되지 않고 다소나마 담양군이나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정책연구모임에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현장활동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05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제1절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1.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필요성
2.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향성
3.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비전과 목표

제2절 담양군의회 연구단체 의원 의견

- 박은서 대표의원
- 장명영 의원
- 박준엽 의원
- 책임연구원 및 기타의원





05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제1절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1.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필요성

담양군의 농촌유학 활성화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의 다양성과 질 향상, 지역 이미지 개선 및 홍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

담양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학교의 존속을 도울 수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유학을 통해 외부에서 온 학생과 그 가족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지역 상권과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 교육의 다양성과 질 향상

외부 학생들이 유입되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게 되어 교육의 질과 다양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지역 이미지 개선 및 홍보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은 담양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방문객과 이주민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농촌유학은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담양군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이러한 다양한 이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향성

담양군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농촌유학을 활성화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 활용, 자연환경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생활인프라 개선 및 홍보, 지역사회 협력강화, 맞춤형 지원 및 혜택 제공, 지속적인 피드백 및 개선 등을 기반으로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향성을 살펴보면,

• 지리적 접근성 활용

광주광역시와의 인접성을 적극 활용해 광주 및 인근 대도시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이 좋은 만큼 주말 체험 프로그램이나 단기캠프 등을 통해 농촌유학의 장점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도 좋을 것이다.

• 자연환경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담양군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차별화된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학생들이 담양의 농촌과 자연 속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할 수 있다.

• 생활 인프라 개선 및 홍보

담양군의 광주광역시 인근 지리적 여건으로 비교적 대도시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홍보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개선을 통해 외부 학생과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의 접근성을 강조하도록 한다.

• 지역사회 협력강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민들이 멘토나 서포터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 맞춤형 지원 및 혜택 제공

유학생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담양에서의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거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다양하고 특색있는 담양의 문화체험 기회제공 등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과 혜택으로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도록 한다.

• 지속적인 피드백 및 개선

담양군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담양군은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성초등학교 모듈러 주택



▲용면초등학교 모듈러 주택

3.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비전과 목표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행전략을 대략적으로 제시하자면,

비 전

"자연과 교육이 어우러진 담양,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농촌유학도시 담양"

목 표

담양군의 농촌유학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통해 담양군이 농촌유학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한다.

■ 유학생 유치 확대

광주광역시 및 인근 대도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유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5년 내에 담양군 내 모든 소멸위기 학교의 학생 수를 안정화 하도록 한다.

■ 차별화된 교육 제공

담양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도시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담양군을 생태 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

■ 지역사회와의 상생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농촌유학생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도록 한다.

■ 생활인프라 개선

담양의 농촌유학생과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담양군의 생활환경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간다.

■ 지속 가능한 발전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담양군의 농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한다.

실행전략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맞춤형 실행전략을 통해 담양군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한다.

■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대상 맞춤형 홍보: 광주광역시 및 인근 대도시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 지역 행사 등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의 장점을 적극 알린다.
-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말 체험 프로그램이나 단기 캠프를 운영해 도시학생들이 담양의 자연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 생태·환경교육 강화: 담양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 맞춤형 교육 제공: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 생활인프라 확충 및 지원

- 주거 및 생활 지원: 유학생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듈러 주택 등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비 지원을 확대한다.
- 문화 및 여가 시설 개선: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의 접근성을 개선해 유학생과 가족들이 담양에서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 지역주민 참여 유도: 지역 주민들이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유학생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유학생과 가족들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지속적인 피드백 및 프로그램 개선

- 참여자 피드백 수집: 유학생과 그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간다.
-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담양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제2절 담양군의회 연구단체 의원 의견

지역사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하나의 해결책으로 '농촌유학 활성화'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담양군이 안고 있는 이같은 인구감소, 폐교문제와 작은학교 살리기, 농촌빈집, 농촌인력난 등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담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담양군, 담양교육지원청의 농촌유학 정책을 비롯 전국의 농촌유학 선도지역과 성공 사례지역의 답사와 현장활동을 통해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과 현실적인 방안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박은서 대표의원

2000년대부터 지속되었던 저출산 문제가 2023년 0.65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심각한 초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학생수 감소가 단순히 학교의 폐교 위기를 넘어 우리 담양군의 미래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도 기준 우리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26개 학교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가 10개교나 된다.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농촌유학은 2021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서울의 학생들이 자연 친화적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더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중이다.

처음 81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500여명의 학생들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유학 생활을 했다.

농촌유학이 단순히 학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넘어 유학을 온 학생 및 가족들이 지역의 정서에 매력을 느끼고 귀농·귀촌 형태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견1 인구 유입의 관점에서 보자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게 주거시설 마련이라는 생각이다.

담양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금성면과 용면에 농촌유학생 가족이 머무르는 모듈러 주택을 제공해 금년에 유학생 8가정의 입주 및 등교를 마친 상태이다.

앞으로도 유학을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맞는 쾌적한 거주시설이 갖춰진다면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건물을 새로 짓는 방안만 모색할게 아니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곳곳에 방치돼 있는 빈집 활용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견2 이번 현장활동으로 다녀왔던 주거시설 마련을 통해 농촌유학을 성공으로 이끈 충북 괴산 청안면 제비마을의 성공사례를 들어보겠다.

충북 괴산군 제비마을에서는 폐교 위기에 놓인 백봉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 공모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초등학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월 5~9만원 자부담 주택을 제공한 결과 학생 16명의 폐교 위기 학교에서 58명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로 변모했다.

그런데, 괴산군의 제비마을은 다른 지역 농촌 유학과는 차별성이 있었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본래 농촌유학은 단기적으로 6개월부터 가능하고, 또 기존 도시의 학교에 학적을 두고 오는 것이 기본이다. 그와 달리 가족들의 주소지 이전과 백봉초등학교에 학적을 두고 졸업시기까지 거주할 수 있게 주거시설을 제공을 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애초 선발과정에서 장기적 체류자를 우선시 선발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 초등학교 졸업후 자연스레 그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유학생들이 끝나도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교육적 측면만의 접근을 넘어서 부모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이후 주거공간 알선 등 농촌유학으로 파생되는 경제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결국,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농촌유학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탄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양군도 괴산군 청안면 제비마을의 성공사례 처럼 단기간에 반짝이는 농촌유학 보다는 지역내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을 늘려나가기 위한 거주공간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조건을 갖춘 농촌유학생 유치 정책을 보다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견3 농촌유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 예로 또한 현장활동을 다녀왔던 곡성군의 오산초등학교 농촌유학 사례를 살펴보면, 이곳 역시 체류형 농촌유학의 모범사례로 15가구 총 21명의 농촌유학생들이 모듈러주택을 제공받아 생활하고 있다. 넓은 부지에 전부 모여 사니 마을이 형성되고 유학생 학부모들간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돈독해 보였다.

그런데 현재 오산초등학교는 원주민 학생 수보다 유학 온 학생 수가 더 많아 학생회장 선거에서 유학생이 당선 되는 소위 말하는 굴러온 돌이 밝힌 돌 빼낸다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원주민과 유학생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따른 정책발굴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담양군이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견4 우리 담양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다른 농촌들에 비해 정주여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따라서 농촌유학이 임시방편적으로 유학생들만 하고 떠나는 철새형이 되기 보다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매력을 느끼고 이곳에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는 업그레이드형 농촌유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담양군의 농촌유학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의견5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유학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체계적이고 치밀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담양형 농촌유학 지원체계 수립 및 전담조직(협의체)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갖는 효율적인 인구대응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장명영 의원



공교육에서는 농촌유학 오는 가족들에게 담양군이 모듈러 주택을 제공하거나 하는데 정작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

대전면의 잇다발도르프 학교는 올해도 신입생 9명이 들어왔고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최장 12년을 다니게 되는데도 공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지원과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학교가 공교육으로 하는 농촌유학 보다 오히려 지역 인구 늘리기에는 더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담양군이 관내 대안학교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잇다자유발도르프 대안학교가 담양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주한 사례가 83명인데 관내 다른 대안 학교들도 아마 이 정도의 담양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공교육 분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양 관내의 대안학교에도 그 나름의 정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2 년도에 대안학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담양군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의견1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가 연구모임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장활동에도 나서고 있지만 공교육 분야의 농촌유학과는 별도로 담양 대전면에 있는 잇다자유발도르프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이고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안학교는 사실상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인구늘리기와 농촌유학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지역 대전면에 있는 잇다발도르프 대안학교는 일단 1학년에 입학하면 12년을 이 학교에 다니게 되고,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학생, 학부모 전가족이 담양으로 이사해서 함께 생활하거나 하기 때문에 담양의 인구증가에는 오히려 공교육의 농촌유학 형태 보다 더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대안학교에도 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적 지원과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견2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보면, 농촌유학을 활성화 하는 것을 통해 폐교 위기의 농촌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는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담양군이나 담양교육청이 상호 연계해 농촌지역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에 농촌유학생 유입을 적극 추진하되 가급적이면 가족이 체류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형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학생만 잠시 머무르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유학은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견3 농촌유학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가족들이 담양에 들어올 때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학생 가족들이 담양에서 아이들 학

교보내고 생활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개인 개인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담양군이 올해 웅천초교와 금성초교에 지원한 모듈러 주택 같은 것을 관내 농촌유학을 시행하는 학교에는 더 많이 지어서 지원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모듈러 주택이나 담양에 이사와 거주하려는 유학생 부모들을 위한 연령별, 직업별, 분야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학생 자녀와 더불어 학부모들도 안정적으로 담양에서 학교에 다니고 가족들의 생계와 생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의견4 담양군에서는 농촌유학 학교와 대안학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그리고 아직도 미흡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보다 폭넓고 형평성 있는 교육정책 시행 및 지원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견5 담양군과 교육청과 더불어 우리 군의회에서도 연구모임 의원들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인구소멸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므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나 대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보태야 하고, 아울러 그동안 소홀했던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에도 함께 했으면 한다.

박준엽 의원

담양 농촌유학에 대해서는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올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담양군의회 지방소멸 대응 농촌유학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유학이 궁극적으로 담양군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리 지역이 향후 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을 대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건데, 그게 학교를 지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면에서 좀 더 다양한 방향에서 담양 농촌유학을 활성화와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담양군의 정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의견1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다보니, 대안교육과 관련해서도 형평성에서는 어긋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담양군 안에 있는 대안학교도 공교육의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접근법에서 똑같이 바라보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의견2 이번에 현장활동을 방문했던 대전면의 잇다자유발도르프 대안학교 학부모들께서 담양에 학교를 세우고 많은 분들이 주소를 옮기고 이주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다. 학교가 사라지면 남아 있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들을 챙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농촌유학도 하는 것인데, 농촌유학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소멸 기간을 늦추려고 하는 상황일 뿐이다. 농촌유학도 이 소멸단계를 최소한 늦춰 보고자하는 그 취지로 하고 있으나 어찌됐건 지금으로선 가장 필요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중 하나이며 따라서, 농촌유학을 활성화 하는 다양한 방안 모색과 정책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견3 그동안 담양군 농촌지역 활성화의 범위를 공교육에만 포인트를 맞췄는데 이제 농촌의 공동체를 살리는 한 방안으로 봤을 때는 잇다발도르프학교와 같은 지역의 대안학교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된다. 이를 잘 풀어내면 담양군이 지방소멸 대응의 한 방안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다. 의회 연구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농촌유학 활성화가 꼭 폐교만 살리는 것이 다는 아니고, 지금 담양군에 들어와 있는 대안학교도 잘 살려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주민구를 늘려가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농촌유학 활성화의 범위에 대안학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다.

의견4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던 해남 북일면이 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촌유학을 통해 면 인구를 150명이나 늘렸다.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의 학교를 살리고자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성공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대전면의 잇다자유발도르프 학교가 100명 정도의 학생, 학부모가 담양에 거주를 한다는데, 이는 해남 북일면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을 볼 때 농촌유학 활성화가 굳이 꼭 공교육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대전면 지역에, 학교 근처에 빈집이 있거나 또는 아파트에 빈 공간이 나왔거나 이런 것을 담양군에서 임대하거나 수리해서 이 학교에 다니고 담양에 이주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로선 전원주택 지어 이사 오려면 한 5억원 정도 가져야 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서 어느정도 해결해 주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군의회 연구모임에서도 앞으로 전남도나 담양군에서 지방소멸 대응의 한 방안으로 지역내 대안학교 활성화 문제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1 농촌유학과 마찬가지로 돌봄정책에 있어서도 담양군이 현실적으로 더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면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책임연구원

의견1 농촌마을 빈집과 연계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이다.

농촌지역 폐교 위기의 작은학교를 살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마을의 빈집과 연계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농촌유학 활성화에 가장 애로사항 중 하나가 유학생 가족의 마땅한 거주공간(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유학생 가족이 살만한 집으로 수선, 보수해 무료 또는 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담양군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갈수록 늘고 있는 농촌마을 빈집 문제와 체류형 농촌유학 가족의 거주공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의견2 농촌마을 홀로사는 가구 활용 방안이다.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농촌유학 가족의 거주공간 활용을 적극적 추진하면서 아울러, 농촌마을에 홀로사는 어르신 가구 및 팜스테이를 희망하는 가구를 마을마다 면지역마다 발굴하고 신청을 받아 농촌유학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시도해 볼만 하다. 이런 경우 농촌유학 가족이 지낼 거주공간이나 주택의 일부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가구와 팜스테이 가구에는 적절한 임대료 수입을 보장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견3 농촌의 부족한 영농인력 문제를 유학생 가족의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체류형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현지에서의 거주공간과 일자리, 생활문제이므로 이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로 인해 영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 영농근로자를 쓰지 않고는 농업 자체가 어려워진 실정이므로, 농촌유학생 가족들을 활용한 영농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견4 농촌의 빈집 활용, 농촌마을의 홀로사는 어르신 가구 활용 팜스테이 활용 등은 고령화와 거주민 감소 등으로 갈수록 해체되어 가고있는 마을 소단위 농촌공동체를 되살리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보다 확대될 경우 면단위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적극 추진한 가족 체류형 농촌유학이 활성화 될 경우 농업과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의견5 담양군, 담양교육청에서는 농촌빈집, 독거노인 세대, 팜스테이 농촌유학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 도시 유학생 가족들의 선호도가 높은 모듈러 주택 확충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듈러 주택의 경우, 최소한 농촌유학 초기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담양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등의 조건을 통해 농촌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단기 체류에서 머물다 가는 형태의 담양유학이 아닌 최소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의 선택을 통해 가급적 장기간 담양지역에 체류함으로써 담양군의 정주민구 뿐 아니라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려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정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담양군이 안고 있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작은학교와 폐교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인 농촌빈집, 고령화, 농촌 일손부족, 농촌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의견

의견1 잇다발도르프학교 같은 이런 대안학교는 언제까지 담양에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담양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들어와 지역의 인구 늘리기에 일조하면서 농촌 공동체에 활력도 불어넣고 있으니 담양군에서도 뭔가 이런 학교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

의견2 올해 체류형 유학생 가족들을 위해 금성초와 용면초에 제공한 모듈러 주택은 희망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경쟁이 치열했는데, 담양군이 모듈러 주택을 더 많이 지어 담양으로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가족체류형 유학생 가족들이 별다른 경쟁없이 담양으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의견3 농촌유학 가족들이 담양을 더 잘 알고 아이들 유학이 끝나더라도 담양에 정주하면서 살고 싶어 하도록 체류하는 기간동안 일자리 제공, 취미나 여가생활 지원, 그리고 담양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안내와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도시 유학생 유치에 나서야 한다.

의견4 담양은 광주광역시 인근으로 담양군의 관심과 정책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농촌유학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통해 광주권 도시학생들이 담양으로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의견5 도시 학생들의 담양 농촌유학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성장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과 함께 그 자녀들이 삼급학교 진학을 위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의견6 지역에 거주하는 군부대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지역 여건상 관내 여러 학교에서도 갈수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도 더 다양하고 세밀해 져야 할 것이다. 즉, 대도시 농촌 유학생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지역민 학생들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격차없이 서로 잘 융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의견7 담양은 어느 농촌지역 보다도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좋은 고장이므로 농촌유학 활성화에 있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작은 학교를 폐교 시키지 않고 잘 지켜내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농촌유학의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양군과 교육청, 담양군의회,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책과 실천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 현장활동 (곡성 / 괴산)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06

남겨진 과제 (향후 추진과제)

- 향후 추진과제
- 결론



▲금성초교



▲만덕초교



▲봉산초교



▲용면초교



▲월산초교

06 남겨진 과제 (향후 추진과제)

■ 향후 추진과제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로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제고,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 생활인프라 및 지원 시스템 강화,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참여 확대, 정책 및 제도적 지원 강화,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시해 본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통해 담양군이 농촌유학 활성화에 나선다면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 제고

- 브랜드 이미지 구축: 담양군 농촌유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여 나간다.
- 성공사례 공유: 기존 유학생들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담양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잠재적인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한다.

2.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

- 교육 커리큘럼 개발: 생태·환경 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 교사 역량강화: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

3. 생활인프라 및 지원 시스템 강화

- 주거환경 개선 : 유학생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지속 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지원시스템 구축 : 유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생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4.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참여 확대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 지역 주민들이 유학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지역경제 연계 강화 : 유학생과 가족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정책 및 제도적 지원 강화

- 담양군 및 담양교육청 협력 : 담양군과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재정지원 확대 :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 정기적 성과 평가 :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간다.
- 참여자 피드백 반영 : 유학생과 가족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

추진과제

1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 제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 성공사례 공유

2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

교육 커리큘럼 개발, 교사 역량강화

3

생활인프라 및 지원 시스템 강화

주거환경 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4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참여 확대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경제 연계 강화

5

정책 및 제도적 지원 강화

담양군 및 담양교육청 협력, 재정지원 확대

6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정기적 성과 평가, 참여자 피드백 반영

■ 결론

담양군은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를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유학에 유리한 교육환경임에도 전반적인 농촌유학 성과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농촌유학에 대한 담양군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 또는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현재 담양군의 농촌유학 관련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남도교육청의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도농교류 지원사업 일환으로 담양교육청이 시행중이다. 여기에 담양장학회 기금으로 가족체류형 유학생 가족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듈러 주택을 지어 일부 가족체류형 유학생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 전남도내 농촌유학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곡성, 해남, 영암, 강진, 화순 등 타 지자체에 견줄만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지원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가 지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일정액을 배정해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생 가정을 위한 모듈러 주택 지원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담양군이 보유한 지리적, 문화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담양군 농촌유학 활성화는 기대치가 높은 편이다.

특히, 담양군이 모듈러 주택 건립을 확충하고 도시의 청장년층 세대를 담양으로 유입, 체류형 농촌유학 참여자에게 거주시설을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농촌유학을 통한 상주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면 담양군의 농촌유학 활성화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24년 농촌유학가족 지역문화탐방 체험



▲담양교육청 2024년도 '농산어촌 유학생 환영'



▲만덕초등학교 농촌유학 자연환경 체험활동



▲2023 농촌유학 담양교육청 일행방문



▲담양군지원 모듈러 주택 준공식



▲담양군 지원 모듈러 주택 시설 점검

참여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장 광 호	연구용역 총괄
연 구 원	조 성 원	연구용역 보조 / 자료조사 및 현지답사
연 구 보 조 원	류 상 민	연구용역 자문 / 자료조사 분석 및 검토

(협)천년담양문화제작소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협)천년담양문화제작소